

LawSCHOOL 차오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6. NOV + DEC



11/12

ISSN 2289-0262



-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세종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중앙대학교
- Sungnam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과학기술대학교
- 만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No man is above the law
and no man is below it

LawSCHOOL 창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6
11 + 12



발행일 2016년 11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이항규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표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 04 **로스쿨 탐방**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종민 원장
- 08 **파워인터뷰**
피카캐스트 김유나 변호사
- 12 **로스쿨 핫이슈**
- 16 **행복로스쿨**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감사 학생
- 18 **로스쿨 오피니언**
인텔리온 법률사무소 임영익 변호사
- 22 **특별기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손의태 국선전담변호사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연제 변호사
- 28 **로스쿨 특파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엄유정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박정태
- 38 **로스쿨 생활백서**
2017년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도전해볼까?
- 44 **SPECIAL REPORT**
동아대·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취업박람회
- 48 **그림 읽어주는 변호사 / 책 읽어주는 변호사**
- 56 **서평**
- 58 **문화가 산책**
- 60 **숫자로 보는 로스쿨**
- 61 **협의회 소식**
- 62 **OUT CAMPUS / LAW 낱말퀴즈**

충북대학교는 대전 과학기술연구단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청주에 자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접근성도 뛰어나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우수한 전문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다. editor. 박소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종민 원장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오세요!



약 력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 기술거래사 (기술이전촉진법 등록 자격, 2002~현재)
- 現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대학원장
- 現 충북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 現 한국기술혁신학회 회장
- 現 한국기술과학법학회 부회장

Q.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충북대 법전문원')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A. 충북대 법전문원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중부권의 대표적 로스쿨로서 진리, 정의, 개혁의 건학이념 아래 미래 지식정보시대의 지역사회 및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아주 전망 있는 법전문원이라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Q. 충북대 법전문원에서는 어떤 인재를 선발하고 있나요?

A. 우리 대학 법전문원의 인재상은 한마디로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경쟁



력 있는 법조인'입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성실히 키워나가는 발전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스펙과 능력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절과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 대학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우리대학의 인재상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Q. 충북대 법전문원의 특성화 과목은 '과학기술법'인데, 특별히 과학기술법으로 선정한 까닭이 있나요?

A. 미래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 및 사회발전의 핵심 요소는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북대 법전문원은 대전 과학기술연구단지, 세종 공공연구단지, 오창 첨단과학단지, 오송 국가보건의료단지, 진천음성의 혁신도시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이 가장 많이 집적된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대학차원에서 IT와 BT를 특성화 분야로 하여 적극 육성하고 있는 등 과학기술법학 및 관련 정책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대 법전문원은 과학기술법학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과학기술법' 분야의 다양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여 올바른 과학기술의 창달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Q. 충북대학교에는 1989년부터 '법학연구소'가 설립되어 현재까지도 운영 중입니다. 법전문원과 연계성은 무엇이고, 주로 어떤 연구를 추진하고 있나요?

A. 충북대 법학연구소는 1989년 6월 법과대학 부설 법학연구소로 출범하였으나, 대학의 연구소 관리정책에 의하여 대학교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연구소의 조직과 연구 등 모든 것은 법전문원이 주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법학연구소가 주최하는 쥘리스포럼은 1997년 제1회가 개최된 이래 금년까지 총 45회가 개최되는 등 20년이 넘게 이어져와 그 역사성과 내용면에 있어서 매우 자랑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법학연구소는 매년 10여 차례의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지로는 등재지인 '법학연구'와 특성화 잡지인 '과학기술과 법'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3인의 전임연구원을 포함하여 30명이 넘는 소속교수와 객원연구원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종시와 대전, 진천 음성 혁신도시의 공공연구기관들과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융합연구를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장학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다른 법전문원과 차별화되는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충북대 법전문원의 장학제도는 크게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학교장학금, 발전재단의 법인장학금, 충청북도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충북대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재원을 활용하여 지급하고, 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다른 대학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충북대 법전문원은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과 협약하여 공동학위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파견하고, 인디애나 로스쿨에 1년간 유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미국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취득한 학점은 국내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점 취득은 물론 우리나라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



다. 매년 1-2명씩 선발하여 지금까지 모두 11명이 유학을 다녀왔고, 금년도에 첫 뉴욕주 변호사를 배출하였습니다.

Q. 2017학년도 입학전형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입시와 비교해서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A. 우리 대학의 내년도 입시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정량적 요소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여 객관성을 높인 점입니다. 면접점수 비중을 60점에서 40점으로 줄이고, 평가요소별 기본점수를 사실상 폐지하였으며, 1단계 합격자의 비중도 4배수에서 3배수로 축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학점 및 영어점수의 반영체계를 분별력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입학 이후의 수학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최저학점제(백분위 기준 80점 이상)를 도입하였고, 영어 및 학점의 점수반영에 있어서 일정한 급간을 구분하고, 고득점자와 저득점자의 급간에 따른 점수 폭을 확대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서류평가의 집중도를 높이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서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면접에 있어서는 임시번호 부여, 블라인드 면접시험, 외부면접위원의 무작위 선정 등의 공정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

니다. 자기소개서의 직업기재금지 위반에 대한 심사도 엄격히 시행할 것입니다.

Q. 충북대 법전원은 현재 중부권의 대표적인 법전원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지역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A. 충북대 법전원의 지역 활성화 기여도는 매우 우수하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에 대한 법률봉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법전원에 법률지원실을 설치하고 본교 졸업생 변호사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법률지원사업을 체계적·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보은군·괴산군 등 법률소외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버이날에는 학교차원의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이나 주변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 새터민 등 사회적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 법률구조소송도 매년 4건 이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 같은 노력에 따라 지난해의 법률지원 실적은 총 310건을 수행하였으며, 금년도의 경우 9월까지만 해도 벌써 33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졸업생들의 지역 활동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충청북도 등 인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4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찰, 병원, 공공기관, 로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변호사단체에서도 청년위원장 등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원장님께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1 상담도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매년 학생들의 학업상황 파악과 진로지도 등을 위해 지도교수를 통해 밀착상담을 진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원장과 학생지도센터장이 3학년 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교차원의 1:1 상담을 실시하여 개인별 학업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시험 준비 등에 관하여 학생들의 개별상황에 적합한 지도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Q. 학생들의 취업률은 높은 편인가요?

A. 충북대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현재까지는 매년 10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차원의 지원활동도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 스스로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해당자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으나, 법전원을 둘러싸고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법전원 제도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Q. 원장님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인가요?

A. 저의 가장 큰 바람은 법전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법전원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사법시험 제도와 병행되어 운영되다보니 학생들이 시험에만 몰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처럼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Q. 끝으로 충북대 법전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법전원에 입학하고,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법전원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법조인에 대한 철학이 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전원을 단순히 법률지식을 배경으로 하는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과정으로만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법조인으로서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먼저 명확히 하고, 그 철학을 실천하는 과정으로서의 법전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북대 법전원에 입학하고자 한다면 먼저 인성을 잘 갖추고 이웃과 사회에 대한 배려는 물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조인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닙니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사고와 행동을 하는 멋진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창**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재미있으면서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 피키캐스트(Pikicast)는 이러한 동향을 누구보다 먼저 파악해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현재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의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피키캐스트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 중인 김유나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editor. 박소희



피키캐스트(Pikicast) 김유나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세상을 즐겁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Q.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로스쿨에 진학했다. 어린 시절 꿈이 법조인이었나?

A. 어린 시절에는 음악이나 그림을 좋아하고 책을 읽더라도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 아무래도 문화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평생의 학문과 직업으로 무엇을 선택할 지에 대해 고민은 많았던 것 같다. 법은 현실과 닿아 있으면서도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학문이라는 점에 재미를 느꼈다. 법학이 좋아지면서 저절로 직업으로서의 변호사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도 즐겁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며, 세상도 즐거워지는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 법조인이 되고 싶었지만 문화 콘텐츠와 가까운 일을 하면 스스로 즐겁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둘의 접합점을 찾고 싶었다.

Q.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 로스쿨 진학 후에도 공부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로스쿨 생활은 어땠나?

A. 1학년 가을 연세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이 만든 ‘젊은 예술가를 위한 날개’라는 리걸클리닉 모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예술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모임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타학교 학생임에도 무작정 찾아가서 합류를 요청했다. 소속이 다르긴 했지만 함께 초상권, 저작권 세미나를 하는 등 열심히 활동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다른 학교 학생을 선뜻 받아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동료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든다. 그 때 인연이 된 아티스트들로부터 아직도 연락이 오고 법률상담을 해주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꺼내보는 재미있는 추억이다.

그러나 나 역시 로스쿨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면, 조용한 열람실 풍경, 새벽에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의 찬 공기, 끝없는 시험에 대한 압박감 같은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대부분의 시간은 공부에 쏟아야 했고, 특히 마지막 1년은 치열하게 임했던 것 같다.

Q. 현재 ‘피키캐스트(Pikicast)’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키캐스트는 어떤 회사인가?

A. 피키캐스트는 ‘세상을 즐겁게’라는 모토 아래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소위 신박한 콘텐츠들을 큐레이션하는 페이스북 계정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에디터들과 다양한 제휴파트너들이 피키캐스트 앱을 통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서비스는 국내에서 피키캐스트가 유일했으나 불과 1,2년

사이에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와 MCN(Multi Channel Network)들이 생겨났고 관련 협회도 생긴 것으로 안다.

피키캐스트는 무엇보다 사람이 좋은 회사다.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고 그 과정을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에너지를 얻는다.

Q. 피키캐스트에 합류를 결심한 이유는?

A.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첫 직장은 엔터테인먼트 그룹사였다. 사내변호사로 기업인수 관련 법무가 주된 업무였는데, 콘텐츠 법무를 배우고 싶어 틈틈이 준비해 저작권 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 후 지인을 통해 피키캐스트와 저작권 자문 계약을 맺게 되었다.

자문기간동안 피키캐스트 측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안정된 상사사에서 편안하게 일하고 있었지만, 피키캐스트의 젊은 에너지와 건강한 사내문화, 그리고 특화된 법무를 할 수 있



66

피키캐스트는 '세상을 즐겁게'라는 모토 아래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소위 신박한 콘텐츠들을 큐레이션하는 페이스북 계정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에디터들과 다양한 제휴파트너들이 피키캐스트 앱을 통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99



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에서의 저작권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공정 이용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피키캐스트에서 새로운 제도의 적용사례를 바로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저작권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피키캐스트에 꼭 필요한 일이었고, 고민 끝에 합류를 결심하게 됐다.

Q.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

A. 전통적인 기업법무에 해당하는 업무들과, 저작권관리, 서비스기획 자문과 같은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입사 후에는 내부 정비가 시급했기 때문에 콘텐츠 센터로 들어가 저작권 가이드를 제작하고, 에디터를 교육하는 일을 했다. 그 후에는 법무팀을 신설하여 현재는 계약관리, 경영지원 업무도 하고 있다.

모바일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편이다. 그럴 때마다 예상되는 리스크를 진단하면서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점이 즐겁다.

Q. 업무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A. 피키캐스트는 관련 업계의 선발 주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을 배울 수 있고, 이로 인해 일종의 스페셜리티가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 회사의 경영, 서비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법무를 오롯이 경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업법무에 더하여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로서는 그 '알파'를 정의하고 구체화시키는 데 반년 정도가 걸렸다. 내가 속한 조직의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다.

반면, 시니어가 없는 회사에서 계약관리체계부터 처음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점은 단점일 수도 있겠다.

Q.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A. 저작권 체계를 만든 후 관련 이슈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계약관리나 경영지원업무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부서와 협업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끝내고 결과물을 봤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피키에서는 영어 이름을 쓰는 문화 때문에, '변호사님'이라는 호칭 대신 모두들 나를 'Alex'라고 부른다. 나의 직함을 나타내는 호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에서 내가 하는 일로서 나를 존중한다고 느낄 때 뿌듯하다.

66

저작권 체계를 만든 후 관련 이슈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계약관리나 경영지원업무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부서와 협업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끝내고 결과물을 봤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99

Q. 피키캐스트와 같은 스타트업에서 법조인의 첫 걸음을 떼고 싶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A.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인으로서 진취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아직 입사 전이라면 법 이외의 분야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스타트업은 대개 신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예의주시 해야 한다. 나의 경우 법조계 밖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입사기회도 그렇게 얻게 되었고 말이다.

또한 리스크 예방의 차원에서 보면, 사내변호사에게 법률지식에 더하여 기획자의 DNA가 있다면 더 할 나위 없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A. 현재 피키캐스트 서비스 외에 모바일 쇼핑포털 서비스인 '쿠차' 서비스의 법률자문도 겸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어진 업무에 성실히 임한다면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따라서 30대에는 안정된 커리어를 추구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모바일 서비스 기업을 위한 양질의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창



사진출처: 법률신문

법조윤리시험 2,149명 합격, 합격률 98.21%

지난 8월 6일(토) 치러진 제7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총 2,188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에서는 2,149명이 합격해 98.21%의 합격률을 보였다. 올해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96.12%였던 작년 대비 약 2.09% 상승했으며, 합격자의 성비는 남성이 56.03%, 여성은 43.97%이다.

*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요소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학생들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인하대학교 리걸클리닉 센터, '멘토플러스 어린이 로스쿨' 개최해

지난 8월 10일(수)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105호 모의법정에서는 미추홀도서관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함께하는 멘토플러스 어린이 로스쿨 모의재판이 진행됐다. 멘토플러스 어린이 로스쿨은 인천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에게 법적 관심 및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인하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와 미추홀도서관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30명이 참가했으며, 인하대학교 법전원생 12명이 멘토로 참석해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부산대 로스쿨 학생들과 법조인들의 가을 음악회 열려

매년 가을이면 부산대학교 교정은 감미로운 음악으로 가득 찬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지역 법조인들이 함께 하는 연주회 때문이다. 지난 9월 9일(금)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에서는 부산대 법전원 학생들로 구성된 음악동아리 프로뮤지카(In dubio pro musica)와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함께 하는 '제8회 정기 연주회'가 열렸다. 타령, 왈츠, 영화OST, 가요, 팝 등 익숙하고 서정적인 선율의 연주를 준비한 법학도와 법조인들의 무대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다.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충남대 법전원에 장학금 수여

9월 26일(금)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은 충남대 법전원 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와 20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전달했다.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은 시민들이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 10명 내외의 법전원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장학생 10명을 비롯해 충남대학교 법전원 손종학 원장과 이현주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2017년 '마지막 사법시험'



헌재는 9월 29일(목) '사법시험준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범윤씨 등이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돼도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쟁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

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는 사시를 준비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이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 또는 소멸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

는 과정에서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부 입학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과정 부실 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는, 사법시험법의 폐지와 로스쿨의 도입을 전제로 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2016-09-26

2017학년도 공동입학설명회 개최

9월 23(금)~24(토)일 양일간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서울 성동구 소재)에서는 「2017학년도 공동입학설명회」가 열렸다. 약 4,500여명의 수험생 및 학부모가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는 이번 공동입학설명회에는 역대 공동입학설명회 중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23일(금) 11시에 진행된 개막식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해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형규 이사장은 공동입학설명회장을 찾은 수험생과 25개교 법전원장에 대한 감사인사로 개막식을 시작했다. 법전원 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현안사항도 개막 인사에 담았다.



공동입학설명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단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설명회장을 찾은 학생들로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이 가득 찼다.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한 법전원 교수들이 학생들과 1:1 상담을 하고 있다.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이 설명회장을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설치된 상담부스에서는 법전원장, 교수, 입학사정관 등 학교별 5~7명의 전문가가 수험생을 위한 1:1 개별상담을 실시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수험생들은 올해 8월 28일(일) 실시된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과 학부 성적, 어학 점수, 사회 경력 등을 고려해 개별 상담 부스를 찾아 입학 가능성을 살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전형 요소, 등록금 및 장학금 혜택, 시설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1:1 맞춤형 입학 가이드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 공동입학설명회에는 법전원별 부스뿐만 아니라,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부스가 추가로 설치됐다.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진솔한 조언과 상담을 실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 개막인사 중 발췌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개막인사를 하고 있다.

○ 법전원의 출범은 황폐화되었던 학부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학부 전공자가 법조인이 되어 보다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 사시준치론자 및 일부 정치인들은 돈이 없으면 법전원에 다니지 못한다고 여론을 호도하지만, 법전원에는 지금까지 돈 한 푼 내지 않고 오로지 장학금을 받아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이 2,400여 명(정원대비 15% 수준)이나 된다.

○ 법전원은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 2009년 사법시험법을 제정하면서, 사법시험은 2008년 대학을 입학한 학생에게 10년의 기회를 주고 폐지하기로 규정했으며 사법시험 존치보다 법전원 안착이 더 중요하다.

○ 2016년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사시를 일부라도 존치시킨다면 법전원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말씀은 정부가 사시존치 여부에 관하여 기본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생각된다.

빡빡한 일정과 많은 공부 양에 지칠 만도 한데, 로스쿨에 들어와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잘 나가던 금융공기업을 다니다 불현듯 사표를 던지고 로스쿨행을 결심한 조감사 학생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editor. 박소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조감사 학생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에서 근무했다. 빈민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대출을 제공하여 빈곤퇴치에 이바지한 공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그라민 은행의 설립자를 꿈꾸며 은행에 입사했고, 금융공기업에서는 가계부채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서민 금융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경험했다.

Q 직장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 었나? 사법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로스쿨로 방향을 잡게 된 이유도 궁금하다.

A 학부 졸업 후에는 금융전문가가 되겠다는 꿈과 열정으로 달렸다. 그런데 금융 분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조금씩 욕심이 생겼고, 법적 전문성을 갖춰 주도적으로 새로운 금융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부산대학교 로스쿨로의 진학을 결심한 계기도 금융·해운통상법을 특성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최소 2년~3년, 길게는 10년 이상, 어쩌면 합격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시험에 감히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수험기간 동안 뒷바라지를 해줄 사람도 없었다. 반면, 로스쿨의 경우 입학만 하면 교수님들께서 3년 동안 잘 가르쳐 주시고,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일자리카까지 얻을 수 있으니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Q 학비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나?

A 나보다 먼저 로스쿨에 입학한 친구에게 ‘학비가 걱정된다’고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굉장히 낮은 금리(고정금리 2.5%)와 장기간의 상환 기간(17년, 최장 7년 거치/10년 상환)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재학생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도움(2천만 원 정도의 한도)도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친구의 말을 들으니 당장의 학비와 이자에

대한 걱정은 해결할 수 있었고, 생활비는 열심히 생활하면서 벌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Q 적지 않은 나이에 로스쿨에 입학했다. 로스쿨 생활은 어떤가?

A 빈말이 아니라 정말 최고로 재미있다.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3년이라는 시간동안 다 해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울 정도다. 무엇보다 로스쿨은 실무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게 된다. 미래의 내모습을 그려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웃음)

사실 학기 중에는 과거의 법학학사 과정, 자격을 얻기 위한 수험과정, 실무를 위한 과거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3년으로 압축하여 재구성한 로스쿨만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느라 바쁘다. 하지만 방학이 되면 다양한 공적기관(법원, 검찰, 특허청, 국방부, 경찰, 법무부, 국회, 헌법재판소, 법률구조공단 등)과 국·내외 로펌, 국제기구 등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논문 대회와 변론대회가 개최되고, 매우 매력적인 특전과 상금도 있다! 이 외에도 나처럼 학생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 각종 학회와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로스쿨 생활은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Q 부산대학교 로스쿨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출마하게 됐나? 또 학생회장으로서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소개해 달라.

A 부산대학교 로스쿨은 나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큰 은혜를 입게 된 만큼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다. 감사하게도 부족하고 흠이 많은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회장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현재 학생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부산대학교에 변호사시험장을 유치하는 것과 전국 25개 법전원이 계절학기 수업을 교류할 수 있도록 수강 협력을 맺는 것이다.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고 임기 내에 이루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기여하고자 한다.

Q 2년여의 로스쿨 생활에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

A 로스쿨에 제도적인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누구의 허락도 구할 필요 없이 온전히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로스쿨로의 도전과 2년여의 로스쿨 생활을 통한 가장 큰 수확은 ‘용기’가 생겼다는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또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 는 벽차지만, 좁게는 같은 학교 동기들, 넓게는 전국에 있는 7기 동기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큰 힘이 된다. 같은 목표를 가진 동기들이 있어서, 3년의 시간을 더 열심히 보낼 수 있는 것 같다.

Q 어떤 법조인을 꿈꾸나?

A 은행에서 근무하던 시절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만지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다. ‘돈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은 신이 창조한 것인데, 둘 다 창조물이라는 점에서 같다면 나는 살아가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라는 생각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처럼, 금융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금융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만드는 ‘금융전문 법조인’이 되고 싶다. **창**

조감사 학생이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노하우!

강점에 집중하라!

법전원 입시에서는 학점(GPA), 법학적성시험(LEET), 영어 성적(TOEIC 등) 이 세 가지 요소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합격자들의 대부분이 무엇 하나 빠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점수를 잃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다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준비도 있을 수 없으므로 부족한 점보다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입학의 기회는 1년에 단 두 장의 카드뿐!

입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지원 가능한 학교가 ‘단 두 곳’뿐이라는 점이다. 1년에 단 한번 있는 기회만큼, ‘안정지원’을 고려해 볼 것을 추천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는 오래 준비한다고 자신의 스펙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법률 융합



임영익 변호사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대표

인공지능 판사의 탄생

우리는 올해 3월 알파고와 바둑 세계 챔피언 이세돌을 이기는 것을 보면서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에 경악하였다. 사실 인공지능은 반세기 전에 탄생하여 이미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하지만 알파고 사건을 기점으로 일반인들도 딥러닝(Deep Learning)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미래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녔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된 것 같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퍼져가면서 법률의 세계에도 깊숙이 파고 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법률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관심이 급상승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올해 10월 24일 인공지능 판사 알고리즘 연구에 대한 논문이 온라인 과학 잡지 피어제이 컴퓨터 사이언스(PeerJ Computer Science)에 실렸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런던(UCL), 셰필드대, 그리고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공동 연구진은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인권협약 제3조(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처벌금지),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제8조(사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 등에 관련된 판례 584건을 학습시켜 인공지능 판사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열린 재판과 동일한 재판을 시행하였는데 놀랍게도 그 예측의 정확도가 79%나 되었다.

사실 컴퓨터를 이용해 재판결과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도에는 미국 워싱턴 대학 로스쿨이 중심이 되어 판결 예측 프로젝트(Supreme Court Forecasting Project)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컴퓨터의 예측 결과가 인간 법률가들을 뛰어넘어 큰 이슈가 되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시카고 캔트 스쿨의 다니엘 캐츠(Daniel Martin Katz) 교수팀이 개발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예측 알고리즘은 75%의 정확도를 보이기도 했다.

올해 발표된 인공지능 판사 시스템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판결 예측 프로그램 연구에 사용된 기술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알파고에 사용된 딥러닝도 일종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다.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를 말한다. 가령,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수신한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도 있다. 머신러닝은 전통적 인공지능 기법과는 달리 각각의 이메일이 스팸인지에 대한 정보를 모두 코딩할 필요없이 스팸과 정상 메일에 대한 기존 데이터만 충분하면 이를 통해 학습하여 스팸 메일을 판별해 낸다.

인공지능과 전문가 시스템

1940년대 앨런 튜링(Alan Turing)을 중심으로 머신 인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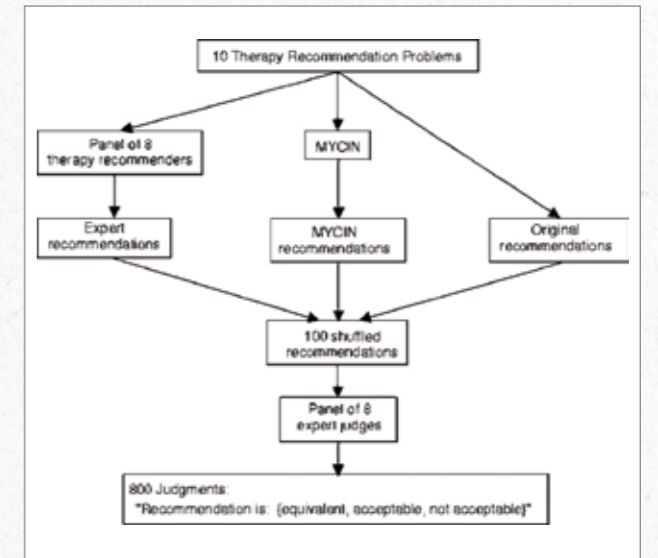
전스(Machine Intelligence)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인공지능'이란 말이 처음 사용된 다트머스 포럼(Dartmouth forum, 1956년)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초창기 인공지능은 미로문제풀기 같은 탐색과 추론 연구에 집중되었고, 1957년도에는 인간의 신경을 모방한 퍼셉트론(Perceptron)이 탄생하였다. 퍼셉트론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의 발전방향을 선도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대가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가 인공지능의 한계를 지적한 이후 인공지능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였다.

이런 인공지능의 침체기를 지나 1970년대에는 단순한 규칙기반의 인공지능에 '지식의 이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접목시키는 노력이 있었다.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전문가의 영역(과학, 의학, 법률 등)에서 전문가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이라고 한다.

1960년대 후반 에드워드 파이겐바움(Edward Feigenbaum)이 개발한 덴드럴(Dendral)은 최초의 전문가 시스템으로 화학분석에 이용됐다. 이후 1972년 개발된 의료용 전문가 시스템 마이신(MYCIN)은 혈액의 감염병을 진단하고 항생제를 처방하도록 설계되었다.

의료용 전문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법률 분야의 전문가 시스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미국의 세법을 대상으로 한 케이론(CHIRON, 1991년), 캐나다 퀘벡 주의 주택법을 대상으로 한 로지엑스퍼트(LOGE-EXPERT, 1991년) 등이 개발되었는데 특히 호주의 제임스 포플(James Popple) 교수가 개발한 샤이스터(SHYSTER, 1993년) 시스템은 저작권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 추론 시스템이었다. 포플 교수는 사례기반 추론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샤이스터와 규칙기반의 의료전문가 시스템인 마이신의 장점을 결합하여 한층 진화된 샤이스터-마이신(SHYSTER-MYCIN, 2003년)이라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법률 전문가 시스템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탄생하고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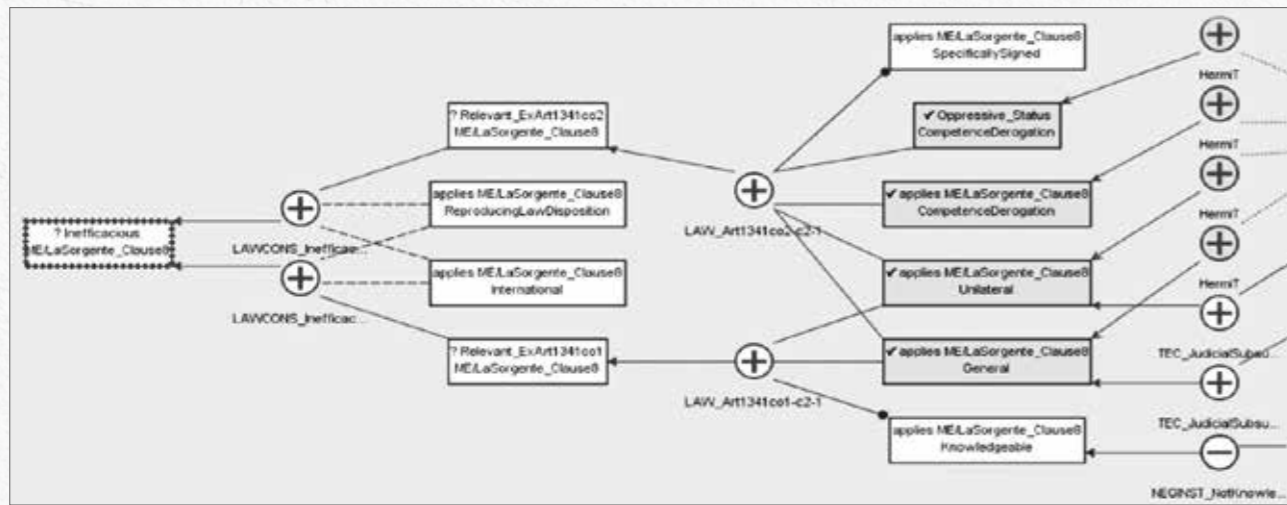


MYCIN 개요도

전하였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법률에 수학, 통계학 등의 다양한 학문을 적용시키는 연구가 있었다. 예를 들면 법적 논증을 기계적으로 서술하고 도식화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를 논증 도식(Argumentation Scheme)이라 하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인 학자는 존 위그모어(John H. Wigmore)이다.

위그모어는 그의 대표적인 저작 "법적 증명의 과학(The Science of Judicial Proof, 1937년)"에서 법률 논증 과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소개하며 '증명의 과학'이라는 것을 설파하였다. 특히 그가 개발한 시각적 분석 방법인 차트 분석은 후에 더글라스 월튼(Douglas Walton), 토마스 고든(Thomas Gordon) 등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1960대 말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는 신증거학(New Evidence Scholarship)이 유행하기도 했다. 신증거학은 증거법에 대한 새로운 법학 방법론이었고 참신한 시도였지만 초기에는 많은 수난을 당했다. 그 당시 법률가들에게 법률과 과학의 융합은 '신성한 재판에 불순한 인공물이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카르네아데스 시스템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그러나 이제 법률 논증의 과학이 인공지능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법률 논증 및 추론 이론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법률 논증 방법론은 논증 도식을 시각화하는 도구 개발에까지 이르렀는데, 위에서 언급한 위그모어의 아이디어를 계승한 더글라스 윌튼은 보강증거에 대한 시각화 기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으며, 토마스 고든의 카르네아데스(Carneades) 시스템(2007년)은 추론을 시각화하는 논증도식 기법으로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과 법률공학

초기 용기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법률 전문가 시스템이나 카르네아데스 시스템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첨단 인공지능 기법이 장착된 모델은 아니며 실제 변호사 시장에 널리 응용되기도 못하였다. 사실 인공지능 법률 시스템 개발이 기업을 통해 상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단적으로 보아도 2009년 미국 스타트업 엔젤리스트에 등록된 법률 스타트업은 15개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2014년 400여개로 늘어나면서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공학과 법률의 융합분야를 대략적으로 법률공학(Legal tech)이라고 한다. 법률공학적 개념은 법률서류관리 분야에서 문서 분석, 판결 예측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법률공학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례로는 렉스 마키나(Lex Machina)를 들 수 있다. 2015년 세계 최대 법률 정보 회사인 렉스넥스(LexisNexis)에 인수 합병된 렉스 마키나는 지능형 특허 법률 정보 시스템으로 법률사무소, 기업, 컨설턴트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렉스 마키나는 수백만건의 특허관련 문서뿐만 아니라 판사성향 분석까지 처리하여 고객이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렉스 마키나 이전에도 미국에서는 방대한 문서를 분석해야 하는 e-디스커버리(e-discovery) 분야에서 법률공학적인 연구가 많이 있었다. 국내에는 없는 제도지만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분석 분야인 e-디스커버리 분야에서 머신러닝 기법이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 미국의 블랙스톤 디스커버리(Blackstone Discovery)사는 2012년 <포춘>지가 '세기의 특허 재판'으로 평한 애플 대 삼성 특허소송에 참여한 e-디스커버리 업체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수십 명의 변호사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몇 달 동안 수백만 건 분량의 서류



e-디스커버리 소프트웨어 "Ringtail"

를 일일이 검토 해야 하지만 인공지능 e-디스커버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몇 명의 변호사라도 짧은 시간 내에 수백만건의 문서를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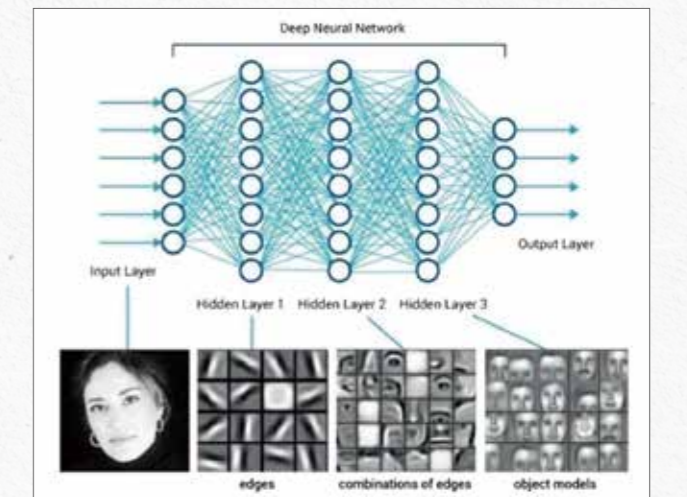
또한, 인공지능의 기술적 적용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시스템을 재구성하여 변호사들이 쉽게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Ringtail'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법률공학의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우아한 시스템이다.

법률공학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는 분위기 속에서 법률 분야에 알파고가 장착한 딥러닝을 적용한 회사가 바로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이다.

2016년 5월 미국의 대형 법무법인 베이커앤호스테틀러(Baker&Hostetler)에 채용되어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라는 칭호를 갖게 된 로스(Ross)는 IBM의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Watson)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률 자문 솔루션이다. 로스는 음성인식이 가능하고 간단한 법적 질문에 답을 하거나 관련 판례를 제시한다. 로스는 IBM이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머신러닝을 수행하며 현재는 '파산법'에 특화 되어있다.

로스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딥러닝 등의 첨단 머신러닝 기법이 법률세계에 응용되고, 나아가 IBM 왓슨 같은 만능 법률기계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법률가이며 미래학자인 리처드 서스킨드(Richard Susskind)는 그의 저작 '변호사의 미래(The Future of the professions)'에서 과학기술을 잘 아는 것이 미래 변호사의 경쟁력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우울한 입장으로 보여진다. 아무리 미래가 인공지능 같은 첨단 과학기술에 의해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수학이나 인공지능을 독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머신러닝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할 듯 하다.

서두에 소개한 인공지능 판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마치 기계가 인간을 금방이라도 대체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이 판사, 변호사를 대체하기 어렵고, 그런 기술도 금세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인공지능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법률 도우미로 진화하면서 법률 세계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⁴⁾



딥러닝 체계도



산책하듯 인생을 걷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손의태 국선전담변호사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진실로 위대한 생각들은 걷는 동안 잉태됐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프랑스 북동쪽 피카르디 지방을 수없이 거닐며 보고 느낀 것들을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라는 저작에 남겼다. 뿐만 아니다. 근대 계몽주의 철학의 대표자인 칸트는 프로이센의 수도인 쾰니히스베르크에서 평생을 살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산책했다.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칸트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시간을 가늠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이들 철학자들에게 과연 ‘산책’은 무엇이었기에 그들의 업적에 이토록 기여를 한 것일까. 산책의 숨은 기능 때문이 아니었을까.

걷기는 인간의 모든 신체부위를 사용한다. 발가락부터 시작해 머리근육까지 사용하니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은 찾기 힘들다. 걷기 운동에서 가장 대중적인 것이 바로 산책이다. 산책은 일반 보통 걷는 속도로 하여 자신이 정한 코스를 걸으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40~60% 정도의 운동 강도, 분당 60~70m의 속도로 이동하여, 지친 심신의 근육을 이완하여 몸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 산책은 이러한 신체 운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의 사고에 있어서 뇌 운동을 극대화한다. 누구나 한번쯤 걸던 중에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의 답을 발견하거나,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도 하는 등 걷는 도중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아갈 길을 찾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루소나 칸트 또한 산책의 이런 면 때문에 산책 중독자가 되지 않았을까. 산책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운동

을 하면서 자신의 몸과 정신까지 함께 단련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산책이다.

산책에 대한 서론이 길었다. 로스쿨에서 혹독한 시간을 견디며 정진하고 있을 후배들이 시험에 대한 압박, 법조인으로서의 진로고민, 성적 경쟁 등에서 자아를 잃어버리지 말고 주변을 살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로스쿨에 입학한 이후에는 매학기가 말 그대로 ‘폭풍’ 같이 지나간다. 정신 없이 앞을 향해서 질주하다보면 어느새 학기가 끝나있다. 모든 과목에 있어 전체적인 윤곽을 잡음과 동시에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꿰뚫도록 공부하려면 매학기 진이 빠진다. 2012년 실시된 첫 변호사시험 이후 외부에서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운운하며 깎아내리지만, 로스쿨을 1년이라도 다녀 본다면 그곳이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쉽게 변호사가 된다”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변호사 자체의 사회적 지위를 깎아 내리고 싶어하거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실력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로스쿨 재학당시의 수업을 되돌아보면 수업의 강도와 수준이 무척 높았다. 어떤 교수님은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직전에 선고된 판례와 개정된 법률을 손등에 불펜으로 적어와 수업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에 관련지어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다.

이렇듯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는 산책이 필요하다. 앞선 철학자들과 같은 위대한 철학적 업적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고, 나아갈 방향

66

합격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중 시험만 붙으면 되는 사람과 변호사가 되고나서 앞으로 어떠한 법조인의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시험에 합격했다는 결과가 같더라도 이미 출발점에서부터 차이가 생길 것이다. 사색을 통한 신중한 선택과 결단어린 발걸음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시나브로하게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고심하며 한걸음씩 걸어 나가는 사람에게는 뜻밖의 행운이라는 이름으로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99

을 정하고,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방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학점, 학벌, 나이, 성별과도 같은 조건들에 대한 점검보다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 자신이 법조인으로서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한다. 물론 바쁜 일상 중에 산책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아갈 바를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때로는 낭비처럼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성찰을 동반한 산책은 생각보다 거창한 일이 아니다. 밥을 먹고 도서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그렇게 오며가며 걷는 길에 자신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대학에만 입학하면 되는 사람과 대학에 입학한 후 어떤 대학생이 될 지를 고민한 사람이 있다면, 수능시험을 치르고 대학을 간 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변호사시험도 마찬가지다. 합격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중 시험만 붙으면 되는 사람과 변호사가 되고나서 앞으로 어떠한 법조인의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시험에 합격했다는 결과가 같더라도 이미 출발점에서부터 차이가 생길 것이다. 사색을 통한 신중한 선택과 결단어린 발걸음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시나브로하게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고심하며 한걸음씩 걸어 나가는 사람에게는 뜻밖의 행운이라는 이름으로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필자의 로스쿨 재학 시절을 떠올리면 머리위로 서늘한 바람

이 불어오던 학교 후문의 돌담길이 떠오른다. 수많은 고민과 계획, 그로 인한 번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된 지금은 재판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사무실을 나서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머릿속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도 하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도 세운다. 법원을 향하는 오르막길이 필자에게는 산책길이다. 이 글을 읽은 누군가도 1750년의 칸트가 된 기분으로 로스쿨 주변을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자신이 되고 싶은 법조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길 권해본다. 누군가가 산책하는 자신을 보면서 시간을 알 수 있다면 칸트와 같지 않겠는가. [▶](#)

손의태 변호사

어릴적부터 ‘옆자리 변호사’가 되겠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고 현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사진 촬영과 영상 편집이 취미로, 여행을 다녀오면 나만의 기록을 남기곤 한다. 몇 년 후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한변협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이번 가을학기에는 홍익대학교 법학과의 교양과목 강의도 맡고 있다.



변호사, 발달장애인에게 다가가다.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연제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스쿨 학우 여러분. 저는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기 정연제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권익옹호팀 팀장으로 일하며 발달장애인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후견신청을 도우며, 기타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고의뢰를 받고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이 맞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유능하고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들께서 쓰시는 것이 많은 학우님들께서 변호사로서의 생활과 진로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종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분야는 관련 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됐을 만큼 아직까지는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로스쿨창에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한다면 학우 분들이 향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 대상 범죄를 막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큼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변호사 수요에 비해 장애인이 변호사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받을 만큼 경제적 여건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장애인 단체나 기관에서 변호사가 일하고 있는 경우도 드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들어온 계기와 센터에서 하는 일 등을 소개하여 학우 분들이 장애인 인권분야에서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조

금이나마 알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자라 뇌병변장애 3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성장할 때 주위 어른들과 학우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든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을 갖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대학을 선택할 때 어느 과를 갈까 고민하다가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배우기는 어려운, 그래서 주위에서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법대에 진학한 후 로스쿨에 진학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취업준비를 하던 중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일을 시작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장하며 주위의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는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의 업무가 그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제 장애가 단순히 장애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재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발달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발달장애인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처한 상

66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로서의 장점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 밝고 즐거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걱정거리를 가지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밝은 얼굴로 바꾸는 것이 변호사가 가진 능력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그 보람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99

황과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저 역시 장애인으로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을 겪어 그 이야기를 하면 발달장애인들도 저를 친근하게 여겨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제 장애가 단순히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장애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어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6년 2월 1일 개소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크게 개인별 지원팀과 권익옹호팀으로 나누어집니다. 개인별 지원팀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리하여 생애주기계획을 설립하고, 기타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권익옹호팀에서 하는 일은 크게 권리구제, 공공후견, 형사·사법 절차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권리구제란 학대, 유기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쉼터로 인도해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공공후견이란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신청과 그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 또는 보호자가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심판을 받지만,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약 15가지가 넘는 등 당사자가 직접 하기엔 쉽

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담당공무원과 권익옹호팀이 협력하여 당사자에 대한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가 후견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이 법원에 제출하고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절차 지원이란 발달장애인이 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고, 발달장애인이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경찰조사, 검찰조사 및 법원 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조인으로 참여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며, 발달장애인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경찰조사, 검찰조사 및 법원 재판과정에서 편안한 심리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신뢰 관계인으로 참여해 발달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제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1월말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약 9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로 발을 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일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마다 제 부족한 부분이 자꾸 보이고, 그럴 때마다 위축되고 자신감도 사라져 갔습니다. 또 팀장이란 자리에 있으면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건지 늘 의문을 가지고, 혹시 내 실수로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고민해 왔습니다. 그럴 때 마다 제가 만나 도움을 주었던 발달장애인들을 떠올리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권리를 침해당하고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얼굴에 그림

권리를 침해당하고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얼굴에 그림자가 가득했던 분들이,
제 조그만 도움을 통해
밝은 얼굴로 변하는 것을 볼 때마다
변호사란 직업을 택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99

자가 가득했던 분들이, 제 조그만 도움을 통해 밝은 얼굴로
변하는 것을 볼 때마다 변호사란 직업을 택해 발달장애인지
원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됩
니다.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소송의 당사자
가 되었을 때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되거나 민사재판에서
대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송무경험을 쌓을 수 없
어 이러다가 송무를 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닐
까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달장애인의 특
성을 이해하여 그에 적합한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거
의 없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꾸준히 노
력하면 발달장애인 전문변호사라는, 저만의 분야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송무경험을 쌓
지는 못했지만 차후 송무시장에 나갈 때를 대비해 저만의
분야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또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린다
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종종 변호사가 되어 좋은 점이 뭐냐고 묻는 경우
가 있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돈을 많
이 벌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
로서의 장점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 밝
고 즐거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는 사
람들은 모두 걱정거리를 가지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데, 이러한 분들의 근심을 해결해 밝은 얼굴로 바꾸는 것이
변호사가 가진 능력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그 보람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
는 곳입니다.

부족한 글 솜씨지만 학우님들께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해 봤
습니다. 갈수록 법조시장은 어려워져 가고 장래에 대한 불
안은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저 역시도 변호사시험에 합격
한 후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진로를 택하면 좋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아직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로서 자
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에 진출해 스스로의 가치를 빛내
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변호사는 더욱 매력적인 직
업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하며 여기까지 왔
고 결국 발달장애인 지원 분야라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었
으니까요. 아무쪼록 제 이야기가 학우님들께 작은 반딧불이
되어 변호사로서의 앞길을 비추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창

정연제 변호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권익옹호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
습니다.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이라 두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설렘도 큰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장애인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게 될 지 몰랐네요. 진로를 고민
하는 후배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발간!**

- ▲ 이론과 실무의 균형적인 접근
- ▲ 실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높은 분야 집중분석
- ▲ 변호사시험 실제 출제문제(1-5회) 및 쟁점별 색인 수록

저 자 : 법학전문대학원 공법 교수 8인

- | | |
|----------------------------|-----------------------------|
| [헌법] 김학성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행정법] 이일세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최희수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중권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정주백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호경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전중익 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박재윤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판매가격 : 42,000원 판매처 : 영풍문고, 인터파크, 예스24 등 온라인서점

2016년도 제2차(8월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발간!**

- 제작대상 : 공법, 형사법, 민사법 - 선택형, 사례형에 한함
- 2016년도 제2차 해설집 (8월 시행) 단행본
 - 2016년도 제1차 해설집 (6월 시행) 단행본
 - 2015년도 제3차 해설집 (10월 시행) 단행본
 - 2015년도 제2차 해설집 (8월 시행) 단행본
 - 2015년 발간 해설집 (2014년도 제2차, 제3차, 2015년도 제1차)
 - 2014년 발간 해설집 (2013년도 제2차, 제3차, 2014년도 제1차)
 - 2013년 발간 해설집 (2012년도 제2회, 제3회, 2013년도 제1차)

판매가격 : - 2016년도 제1차, 제2차 : 단행본(각 10,000원)
- 2015년도 제2차, 제3차 : 단행본(각 10,000원)
- 2013~2015년 발간 : 공법(8,000원), 형사법(7,000원),
민사법(9,000원), 3종1SET(24,000원 → 20,000원)
※ 택배비 4,000원(단, 4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신청방법 (상시주문)**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info.leet.or.kr/>)에서 교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lawschool@leet.or.kr) 송부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3-018484
삼영문화사 이준규로 입금

미국 로펌 인턴 활동 후기: LA에서의 2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로스쿨窓)명예기자 3기 엄유정



66
선발된 후에 미리 기본적인 부분을 숙지하고 가는 정도로 준비한다면 활동 시작과 함께 차근차근 배울 수 있고, 투자비용 또한 활동을 통해 받는 것들과 배우는 것들이 더욱 크고 많음을 생각한다면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99

1. 들어가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외국어를 접한 이후로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사는 것이 오랜 꿈이었습니다. 조기유학을 생각하고 준비한 적도 있었지만, 국내에서 고등학교와 학부를 마치고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차에 1학기가 끝나갈 무렵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해외 단기 인턴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지원 후 올해 여름, 2주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기회를 맞아 유능하고 따뜻한 분들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나누었기에, 해외 인턴 모집 및 지원 과정부터 활동 내용과 그 후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지원 및 준비과정

가. 지원 및 선발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해외로펌 단기 인턴 모집 공고를 본 시점은 5월 중반이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관으로 LA에 위치한 외국 계열 로펌에서 여름에 근무할 예비 및 청년법조인 인턴을 모집하는 공고였고, 모집 인원은 총 5명으로 같은 시기에 일괄적으로 함께 근무를 진행하는 형태였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해외로펌이나 국내로펌의 해외사무소에서 인턴활동의 경우, 주로 5월 초에서 중반 사이에 공고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 학부 전공이 법학이나 관련 과목도 아니었고, 아직 1학년 1학기가 채 끝나지 않아 법학 지식이 부족함을 스스로 잘 알기에 한참을 고민하며 망설이다 모집기간 마지막 날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서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크게 내세울 만한 경력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후에 스스로 자신감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이전에 국내 학교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과정들을 꾸준히 밟아 왔기 때문에 영문으로 지원서와 커버레터(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는 점에 오히려 한글로 작성하는 것보다 마음이 놓여 지원을 결심하고 정성껏 서류들을 작성했습니다. (해외로펌 지원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① 영문 지원서와 ②영문 커버레터, ③학부 이상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와 ④자격증 및 외국어 능력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였습니다. 기타 첨부하고 싶은 서류가 있으면 추가 첨부 가능합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다른 기관 지원을 준비하던 중 6월 초에 법무부 국제법무과로부터 LA 로펌 단기인턴 선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 사전 준비

법무부 국제법무과로부터 메일을 받은 후 6월 중반에 회사 측으로부터 하계 인턴십 안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일자 확정 및 선발된 인턴들 사이에 연락처 공유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메일이었는데, 항공비와 체재

비 등 별도의 지원이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 인턴이었기에 이후 확정된 인턴십 기간에 맞추어 인턴들끼리 합의하여 항공편과 숙박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저와 인턴들은 호스트를 통해 회사 인근의 레지던스를 2주간 예약해서 함께 지내기로 했고,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회사 측 인턴십 담당자분께 수시로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 상의했습니다.

저는 6월 말에 1학기를 마무리하고 여름학기를 수강한 직후에 출국 절차를 밟았는데, 기존에 계획한 기간보다 하루 일찍 LA공항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알아차리는 바람에 부랴부랴 당일 예약 가능한 숙소를 검색하여 모바일상으로 공항 인근의 현지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LA공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도중 택시기사분께서 숙소가 위치한 지역이 매우 위험하니 일몰 후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조언하셨는데, 이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지 호텔을 예약한 이유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 때문이기도 했지만 외국 여행을 하면서 도미토리 스타일(침구류가 구비된 한 방에 여러 명이 숙박하는 형태)의 숙소에서 각지의 여행자들을 만나 보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막상 도착해보니 실제로 숙소 건물 자체 부지가 밖에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넓고 숙소가 위치한 번지 내부는 안전해 보였으며, 무제한 제공되는 내부 수영장과 Patio(테라스)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놀랐습니다. 첫 날 저녁의 무료 샴페인 한 잔과 다음날 아침 커피와 도넛까지, 간단한 아침식사가 제공되었던 덕분에 하룻밤만 머무를 곳이 필요했던 제게는 기대 이상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머문 시간이 짧아 새 친구를 사귀진 못했지만 비교적 깔끔한 숙소에서 편하게 잠들고 다음날 사전 예약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둘째 날부터 다른 인턴 분들과 함께 2주간 머무르게 된 숙소는 LA 도심지역과 코리아타운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회사까지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였고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도 많았습니다.

3. 인턴 업무 및 생활

가. 복장 및 일과

제가 7월의 마지막 2주 동안 일하게 된 로펌은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이하 LHDK&W)라는 로펌의 LA 본사(LA Office)였습니다. LHDK&W는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가 지분 파트너로 참여하여 1991년 설립된 회사로, 국내 법무법인 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40여명의 변호사 분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LA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옥 22-23층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각종 법무법인은 물론 KPMG나 Ernst&Young과 같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회계법인과 컨설팅 그룹이 높은 건물들에 간판을 내걸고 있어, 이런 곳에서 일하고 더 배우고 싶다는



Patio와 야외 수영장이 두드러졌던 현지 호텔



첫날 받은 개인별 바인더와 출입카드



강의 후 과제 - 따로 또 같이



66 변호사분들께서 자료와 강의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신 덕에 모든 강의가 유익했고 한국의 법체계와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허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심이 많아 특히 1주차에 진행된 특허법 강의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99



생각에 활동하는 내내 더욱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첫 출근일에는 법무부 인턴들을 위해 마련된 사무실을 안내받아 각자의 이름이 적힌 출입카드와 향후 배부되는 자료들을 보관할 바인더를 받고 서로 간단한 소개를 한 뒤에 미팅을 통해 전반적인 업무와 스케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인턴십 담당자 변호사로부터 사전에 Business Casual(캐주얼한 옷을 차분한 분위기로 입는 스타일)의 복장이 허용된다고 안내 받았고, 첫날 미팅에서도 법원 방문이나 공식 모임 외에는 특별히 정장을 갖추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희 인턴들은 대부분의 인턴십 기간 동안 정장이나 세미 정장 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출근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오전 8시에서 11시까지 유동적이었는데, 공식적인 회사 업무 종료 후에도 인턴 일정이 늦도록 이어지는 날들이 많았고, 일찍 출근한 날이라고 해서 총 근무시간이 짧아지거나 항상 같은 시간에 퇴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 법률 각 분야 강의 및 과제

인턴십의 전반적인 일정은 로펌 소속 각 분야의 변호사분들로부터 다양한 강의를 듣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강의를 들은 후 질의 응답 및 토의를 거쳐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사법 체계가 다르고 법무부 인턴들은 한국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현지의 실무 업무를 맡아 진행하기 보다는 미국의 사법 시스템 교육과 관련법의 이해가 주된 일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주차에는 고용 및 노동법과 제조물책임법, 특허법, 사법 시스템에 관한 강의를 들었고, 2주차에는 LA 주의 민사 및 형사 법원 방문(참관 및 판사분들과의 대화)과 민사 소송 절차, 담보물권법과 계약법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매 시간 강의를 끝날 때마다 담당 변호사분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고, 강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 또는 관련 과제를 제출한 후에는 담당 변호사분들로부터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분들께서 자료와 강의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신 덕에 모든 강의가 유익했고 한국의 법체계와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허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심이 많아 특히 1주차에 진행된 특허법 강의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다. 법원 방문

LA 지역의 민사 및 형사 법원 방문은 실제 재판 절차를 참관하고 지역에서 재판하시는 판사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1주차 마지막 근무일에 미국 사법 시스템에 관한 강의를 들은 후에 2주차에 형사, 민사 법원 순서로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워낙 나라의 면적이 넓고 주(State)의 개수가 많으니 주마다 적용되는 법의 내용이 다르고 주 내의 하위 행정 구역(County; 자치구를 의미하며, 군(君) 정도에 해당)마다 관할 법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 각 법원을 방문해서 재판 참관 후에 현지 판사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판사분들이 걸어온 길과 실무에 관한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처럼 판·검사를 거쳐 변호사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변호사 경력을 가진 후에 선거나 임명을 통해 판사직을 맡게 된다는 점도 큰 차이 중 한 가지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전관예우와 같은 문화를 찾아볼 수 없다고도 합니다.

라. 지사 방문

LHDK&W는 제가 2주동안 인턴 생활을 한 LA 본사를 포함해서 오렌지 카운티(Orange County,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 위치)와 버지니아, 런던과 서울까지 세계 각국에 총 5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주차 마지막 근무일에는 LA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내 오렌지 카운티 지사를 방문해 사무실을 둘러보고 오렌지 카운티 지사에서 미국 사법 시스템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본사가 LA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면 오렌지 카운티 지사는 뉴포트 해안(New Port Beach)에 위치해서 미국 동부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는 다소 대비되는 서부 특유의 깔끔한 건물은 물론, 도심에서 내려다 보이는 뾰뾰한 건물들과 자동차들보다는 회사 건물에서 내려다 보이는 해안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 미팅 및 각종 모임 참석

강의 수강과 과제 해결 및 법원 방문 외에 또 다른 주요 업무 중 한 가지는 수시로 진행되는 미팅과 각종 공식 모임 및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이틀 일정 중의 점심식사(1일차)와 저녁식사(2일차) 시간에 이루어진 Welcome Lunch와 Welcome Dinner는 각각 인턴십을 담당하는 변호사 분들과 회사 설립자 분들을 만나 활동에 대해 안내받고 얼굴을 익히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로펌 소속 변호사분들의 배려 덕분에 남가주(캘리포니아 남부) 변호사협회 모임에도 참석하고, 로펌 내 여러 변호사분들과 돌아가며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식사와 함께 인턴 업무 및 미국 생활에 관한 답소를 나눴습니다. 이 외에도 오전에 회사에 일찍 도착하거나 강의의 시작 전 샌드위치와 베이글을 먹으며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은 물론, 매일 인턴들을 위해 종류별 음료와 간식이 준비되었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작은 문구류 하나까지도 개인별로 부족함 없이 제공되었습니다.

4. 인턴 업무 외

가. 야구 경기 관람

회사 내 업무 외에도 크고 작은 야외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잊을 수 없는 것은 LA Dodger Stadium(다저스타디움)에서의 야구 경기 관람인데, 스포츠에 큰 관심이 없어 생애 첫 야구 경기를 직관한 만큼 저녁 야구장의 열기가 인턴 활동 중 제일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공식적인 일과가 끝난 후 저를 포함한 인턴들은 동행하는 변호사 분들의 차를 타고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1루와 가까운 필드석을



Dodger Stadium

예약해 준 덕분에 한층 가까이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고, 핫도그와 감자,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으면서 즐겁지만 긴장되었던 인턴 활동을 잠시 잊고 경기에 열중했습니다.

나. 비공식 모임

근무 시간 중에 예정되었던 식사와 미팅이나 근무시간 후 잡혀 있던 공식 모임들 이외에도 몇몇 변호사님들과 더불어 진행되거나 인턴들끼리 함께 한 많은 비공식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LA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메뉴를 시도해 보거나 매번 다른 건물에 올라 야경을 감상했고, 영화관에 가서는 당시 한국에서는 아직 미개봉이었지만 현지에서 한창 상영 중이었던 Star Trek Beyond를 함께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다. 관광지 방문 및 자유 시간

주말에는 완전한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저희 인턴들은 다같이 Santa Barbara 해변과 Universal Studio를 방문했습니다. 계획 없이 해변에 방문한 주말 첫날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유난히 구름이 낮게 깔려 불안정해 보이는 날씨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해변 경치를 구경하고 식사만 마친 후에 돌아왔습니다. 전날 해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날 Universal Studio에 갈 때에는 사전에 좀더 알아보고 미리 준비를 해서 모두 Front of Line Pass(대기 없이 입장 가능한 티켓)를 구입한 덕에 스튜디오 안에 있는 모든 쇼를 관람하고 기구들을 탄 후에 기념품까지 구입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출국 전 개인별로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에는 제 경우 LA 시내를 둘러보고 제가 평소애 가고 싶었던 건물들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고, 다른 인턴 분들은 West Hollywood나 LA Greenwich Observatory(그리니치 천문대)와 같은 또 다른 명소들에 가서 멋진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비록 무급 인턴이었던 데다 항공 및 체제비를 사비로 해결해야 했지만, 회사 측에서 2주 내내 법무부 인턴들에게 식사와 생활 전반에 관해 특별한 배려와 대우를 해 주신 것을 실감했습니다. 마련된 일정 자체가 워낙 알차고, 로펌 소속 변호사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좋았던 데다 회사 측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을 써 주신 부분들을 생각하면 결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턴 과정을 위해 사전 준비부터 이후 안부까지 신경 써 주신 담당자 분들께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5. 해외 인턴 활동만의 특별한 장점

해외 인턴 활동의 큰 특징은 무엇보다 타지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야의 실제 업무를 체험하고 배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실무 수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큰 것이 실무가와의 현장 교류를 통



LA 시내 야경

해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살아있는 지식을 체득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 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타국의 법문화와 체계까지 경험하고 비교할 수 있어 이색적 경험은 물론 시야를 넓힌다는 점에서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에서의 공부와 활동에 관심이 있고 소통에 있어 언어 능력이 문제되지 않는 정도라면, 인턴 기간을 거치면서 해당 국가의 법률 용어들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의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에서의 수습이나 활동을 고려하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국가의 생경한 법체계나 소요 비용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지만, 국내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해외 로펌이나 해외 지사의 수습 활동은 선발된 인턴들이 학습한 한국의 법체계 학습 수준에 대한 전제 하에 기획됩니다. 때문에 선발된 후에 미리 기본적인 부분을 숙지하고 가는 정도로 준비한다면 활동 시작과 함께 차근차근 배울 수 있고, 투자비용 또한 활동을 통해 받는 것들과 배우는 것들이 더욱 크고 많음을 생각한다면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6. 맺음말

마지막으로 외국계 로펌에서 진행한 실무 수습 이력을 학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상 필요한 각종 서류들(인턴 활동 신청서와 확인서 등)을 미리 번역하여 출국 전에 로펌 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했고, 활동 말미에 돌려받은 인증 서류와 함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실무 수습 이수를 인정받았습니다.

2주간의 인턴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LA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던 순간의 벅차오름과 2주간의 생활을 떠올릴 때의 설렘은 여전한입니다. 아직까지도 함께 2주를 보낸 네 분의 인턴 모두가 그대로 꿈에 종종 나오곤 합니다. 외국에서의 공부나 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린 시절의 막연한 꿈 혹은 동경이었다면, 학창 시절에는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제가 원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늘 고민했습니다. 2016년 7월의 마지막 2주는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며 제 목표에 몇 걸음 더 다가간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더 넓은 곳에서 크게 생각하고 멀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고스란히 느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다시금 공부에 지친 로스쿨 재학생 분들께 새로운 경험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여러 이야기를 적어보게 되었는데, 단순히 정보나 사실의 공유보다는 또 다른 '시각'을 추가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창**



Universal Studio



Santa Barbara 해변의 가게 홍보 인형



인턴 활동 내내 인턴 사무실에 매일 새롭게 제공된 간식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장을 마치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14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회장 박정태



66 이 자리를 빌어 임기 동안 함께 고생해주신 우리 14대 법학협 집행부와 회장단, 그리고 선배변호사님들과 전국의 6000원우님들, 그 외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9

I.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결심

작년 12월, 로스쿨 학생사회는 7년의 역사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12월의 끝자락은 우리가 꿈꿨던 모습이 아니었고 그래서인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이들의 입에서 '이제 로스쿨은 어떠한 단체행동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들이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다. 다시 할 수 있다.' 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달리 없어 분한 마음을 꺾고 눌러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2월의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세포 곳곳에 새겨진 그날의 경험과 그때를 수없이 복기하며 고민 했던 시간, 그리고 그 시간동안 수십 번은 같고 닮은 방법론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들에게 로스쿨 학생사회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만 그때의 감정이 단순히 치기어린 공명심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일이 지금껏 지켜온 신념과 정의에 부합하는 일인지를 엄격히 따져봐야 했

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을 겪은 사람 중 한명으로서, 로스쿨 학생사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그리고 해야만 하는 역할이 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의 끝에 로스쿨 제도와 학생사회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고 3월 26일, 건국대학교 서진영 원우와 짝을 이뤄 14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의 협의회장단에 당선되었습니다.

II. 준비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를 위해

오랜 시간을 고민한 끝에 협의회장에 당선 되었지만, 산적해 있는 업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법학협에 대한 원우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로스쿨 학생사회에 다시 하나 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했으며, 외부적으로는 사법시험 관련 문제와 로스쿨 제도의 정상화를 막는 모든 행동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14대 법학협을 함께 이끌어줄 집행부를 꾸리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고 곧바로 집행부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14대 법학협에서는 '전략기획국'을 신설하여 앞으로 있을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하여 어떤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고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집행부 임원수를 증원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되도록 모든 회장단이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회장님들께서 기꺼이 힘을 실어 주셨고 이는 14대 법학협이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III. 14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주요 사건들

1.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발표

지난 5월 2일, 로스쿨 입시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발표가 있었고, 이로 인해 로스쿨에 대한 비난여론에 다시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회장단뿐만 아니라 전국의 원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재학생을 대표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 그 수위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쉽게 결정이 나질 않았고 생각보다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더 늦기 전에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법학협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는 재학생 내부 커뮤니티에서만 공개하기로 했고 대외적으로는 개별 회장단의 인터뷰를 통해 재학생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당시 저도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중 모 라디오 방송국에서 요청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표준어라는 언어의 장벽(?)까지 있어 인터뷰 내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방송 날, 차마 직접 듣지는 못하고 방송을 들은 지인들의 반응을 먼저 살폈는데 '일부러 어색한 서울말을 쓴 거냐?'는 한마디에 아직까지도 저는 제가 했던 인터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2. 국민의 당 회의실 점거 사태

교육부 전수조사에 대한 대응이 마무리 되어가던 5월 9일, 갑자기 사법시험 존치모임에서 국민의 당 회의실을 점거하여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입장발표를 촉구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당시 국민의 당에서는 그들과의 면담 후 16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14대 법학협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16일이 월요일임을 감안하면 13일 금요일이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데드라인이라 생각했고 그 전까지 어떻게든 면담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회장단이 직접 당사에 찾아가 16일에 면담을 하자는 약속을 잡게 되었고 입장발표가 예정된 날에 면담이 잡힌 것이 약간 의아하긴 했지만 이내 본격적인 면담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면담을 어떻게 이어갈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며 설명하기보다 좀 더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면담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재학생의 대표자격으로 면담에 임하는 만큼 작금의 상황에 대한 재학생들의 심경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면담을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마침 전국의 로스쿨에서 면담자로 지정된 의원님들을 향한 손 편지를 500통 가량 작성해주셨기에 전략기획국

에서 준비한 자료와 함께 전달하면 효과적으로 재학생들의 심경과 현 상황의 부당함에 대해 알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5월 16일, 실제 면담 자리에서도 준비한 손 편지와 문건을 전달하며 '로스쿨 재학생들 역시 부당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본인의 꿈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선량한 청년들'임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면담을 마치고 몇 시간 후, 국민의 당에서는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서서 유보적인 입장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폐기

국민의 당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바로 다음날, 한숨 돌릴 새도 없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로 전날, 국민의 당 입장 발표를 유보시킨 탓에 다소 긴장이 풀려 있었는데 이내 정신을 차리고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한때 관련 법안이 통과될 법한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현직 변호사선배님들과 각 학교회장단, 그리고 6000 원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결국 19대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작지만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모두가 로스쿨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하는 긍정적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로스쿨 학생사회에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날만큼은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IV. 잊을 수 없는 협의회장으로서의 시간

돌이켜 보면 협의회장으로 당선되었을 때부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로스쿨 제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

저는 협의회장으로서의
지난 시간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옳다고 믿는
신념과 정의의 선 위에서
원우여러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99

다가도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매일같이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감과 싸워야 했으며 심지어는 시험 전날에 기사에 실릴 인터뷰를 밤새 검토하는 나를 보면서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협의회장으로서의 지난 시간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옳다고 믿는 신념과 정의의 선 위에서 원우여러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비록 나 자신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점점 나아져 가는 학생사회를 보면서, 그로 인해 미소 짓는 원우들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으면서 어디서든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보람은 마치 마약처럼 언제라도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으로 작용했고 그로 인해 임기 동안 힘든 와중에도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평소에는 겪기 힘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찾지 못해 허둥했지만 어느덧 방문자 카드를 발급받아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제법 익숙해졌고 인터뷰 때 혹시나 실수하지는 않을까 긴장 속에 안절부절 못했던 저의 모습은 어느새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로스쿨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공유하며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임기 내내 함께했던 법학협 구성원들과의 시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보람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지만 이 모든 것들은 무형의 가치일 뿐, 직접적인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명예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조금 희생해서라도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은 분이라면, 다양한 경험과 만남 속에서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가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주저 말고 도전해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분명 한층 성장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V. 더 나은 미래를 향해

9월 29일,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읽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점 많은 저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셨고 그로 인해 임기를 마치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임기 동안 함께 고생해주신 우리 14대 법학협 집행부와 회장단, 그리고 선배변호사님들과 전국의 6000원우님들, 그 외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로스쿨 학생사회 역시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투명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통해 우리가 지금껏 외쳐왔던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로스쿨 제도의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6000명의 원우 중 한사람으로서 이후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주저 않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우여러분들을 위해 뛰어다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

BOOK



대한민국의 법률가 변화하는 법조에 관한 경험적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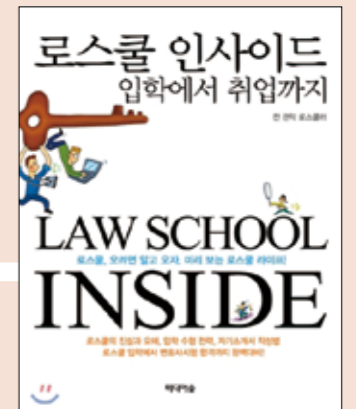
저 자 : 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 13명
출판사 : 박영사
가 격 : 20,000원
판매처 : 영풍문고, 인터파크, 예스24 등 온라인서점

이 책은 우리나라 법률가 집단 내부를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론적 연구의 결과이다. 이 연구를 통해 법률직역에 대한 경험적 실증자료를 구축하여 후속연구의 토대가 되고, 해외에서의 법조연구와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의 저자들은 법학, 경제학, 인류학, 언론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들이다. 저자 자신이 별도로 수집한 자료들도 있지만, 저자들은 대개의 경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주관한 「2014 대한민국 법률직역의 구조와 법률가 의식조사」의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이 조사연구는 2013년 말에 기획되어 다학문적 연구팀 구성, 연구설계, 해외 선행연구자와의 국제 콘퍼런스, 설문문항 완성, 실사, 자료분석 및 논문발표에 이르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로스쿨 인사이드 입학에서 취업까지

로스쿨, 오려면 알고 오자.
미리 보는 로스쿨 라이프!

저 자 : 前 관악 로스쿨러
출판사 : 미디어숲
가 격 : 18,000원
판매처 : 영풍문고, 인터파크, 예스24 등 온라인서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백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기획된 『로스쿨 인사이드』, 6하 원칙에 따라 로스쿨에 관심 있는 학생 혹은 일반인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2017학년도 새로 바뀐 전형 방법을 살펴보고 나만의 성공 전략을 세우며, 미리 보는 로스쿨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입학 후의 공부법과 수험 준비 및 나아가 졸업 후의 진로까지도 그려볼 수 있게 했다.

지난 8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18개 로스쿨에서 26개팀, 189명의 재학생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최종 우승팀 및 MVP 수상자 인터뷰를 비롯해 내년 대회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모아 기록으로 남겼다. editor. 김하영

“2017년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도전해볼까?”



Q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A.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 대회입니다. 권익위는 “국민권익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Q 대회의 전반적인 일정을 소개해주세요.

A. 올해 처음 열린 대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회 운영방식이나 일정이 보완·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원래는 5개 팀만 본선에 진출해 리그 방식으로 평

가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토너먼트 방식의 8강전 및 리그 방식의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주최 측인 권익위는 “기대 이상으로 우수한 참가자들이 많아 더 많은 사람에게 본선 진출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대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보완된 방식으로 공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밖에 다른 대회와 비교했을 때, 예선에서 서면과 더불어 동영상 심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동영상 촬영·편집 기술 자체는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동영상 촬영과 편집에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기를 추천합니다.

참가신청	- 참가 신청서, 소속 법전문장 명의 추천서 제출
예선서류 제출	- 서면(심판 개요서) 및 동영상을 종합심사 * 심판 개요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해 홈페이지에 공고된 3개의 사건(청구서, 답변서 제공) 중 1개를 선택, 역할별 주장·근거를 기재해 제출 * 심리 동영상 위원장, 위원, 청구인, 피청구인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심판 개요서'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는 모습을 촬영, 전자파일(avi, wmv, mp4)로 제출 - 제출 자료에 참가자 인적사항, 참가팀 정보 등 포함 불가 - 이해력(30점), 논리력(30점), 문제해결력(40점)을 평가
예선결과 발표	- (1회 대회의 경우) 8개팀 본선 진출
본 선	- 세종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경연 심사 - (1회 대회의 경우) 8강전(토너먼트) → 결승전(리그)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전자기기 사용 불가 - 미리 준비한 서면자료는 활용 가능 - 시간(40분)을 엄수해야 하며 초과 시 감점 - 심사위원단은 권익위 관계자 및 변호사, 법전문 교수 등 6인 - 이해력(25점), 논리력(25점), 문제해결력(25점), 설득력(25점)을 평가

Q 상(常)의 종류와 수상 시 혜택이 궁금해요.

A. 본선에 진출한 모든 팀에게는 본선 참가패와 후원기관 기념품 등이 증정됩니다. 대상 수상 팀원들에게는 국민권익위원회 인턴과정 우선권을 함께 부여합니다.

구 분	시 상	상 금
대 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상)	1개 팀	100만원
최우수상 (대한변호사협회장상)	1개 팀	70만원
최우수상 (대한법률구조공단장상)	1개 팀	70만원
최우수상 (법률신문사장상)	1개 팀	70만원



김하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1기



이번 대회 최종 우승팀이 답변해드립니다. 어진동 505 서울대 로스쿨팀



어진동 505팀이 경연대회에 참가한 모습

66
대회 참가하시는
분이라면,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최대한 생각해서 인용,
기각의 논리들을
많이 세워두고,
실전 연습도 꼭
해보시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팀원들과 함께
즐기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99

Q. 팀을 소개해주세요.

A. 저희 팀은 2학년 6명(팀장 유현정, 팀원 김은성, 이은재, 이한길, 이동현, 이진안)과 1학년 3명(팀원 김원순, 박정현, 전우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법을 함께 수강했던 사람들 위주로 팀을 꾸렸습니다. 본선 진출을 꿈꾸며 권익위의 주소를 따서 '세종시' 어진동 505'라고 팀명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 권익위가 아닌 그 앞 도로의 지번이었습니다.

Q. 우승 소감은?

A. 우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쁩니다. 특히 최계영 교수님께서 행정심판제도 전반에 대해 특강을 해 주시고 예선과 본선 준비 과정에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성심껏 지도해주신 최 교수님께 이 자릴 빌려 감사드립니다.

Q.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나요? 법조윤리 시험과 일정이 가까워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

A. 준비기간은 예선과 본선 모두 2주 정도였지만 본선 준비기간 중 닷새 정도는 2학년 팀원들의 법조윤리 시험 준비로 대회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본선 과제에 대한 방향설정 및 업무분담을 미리 마쳐 놓았고, 법조윤리 시험 직후부터 다시 모여 밀도 있게 준비한 덕에 시간적으로 크게 쫓기는 느낌 없이 대회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Q. 예선에서 동영상 심사가 있었는데 이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A. 초반에는 실제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모습이 어떤지, 역할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배경지식이 모자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제한에 맞춰 중요한 내용만 추려내는 데에도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도 걱정이었는데, 청구인과 피청구인 역할을 맡았던 팀원들이 불꽃연기를 펼쳐주어서 성공적으로 잘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Q. 우승하실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A. 8강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대팀의 주장이 일부 있어서 답변을 준비하느라 우승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선에서도 경황은 없었지만, 결선 상대팀과는 예전에 연습경기를 치러 본 경험이 있어서 팀원들이 준비했던 말을 대부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해야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Q. 본선 경연대회 문제의 모티브가 된 재결례는 원래 인용이 되었던 건인데, 경연대회에서는 추첨결과에 따라 인용설 혹은 기각설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야했습니다. 각각의 입장을 준비할 때,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 본선 경연대회에 출제된 문제는 2009년도의 실제 재결례(09-10627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재구성한 것이었음.
- 청구인이 A사와 직접적인 사업계획승인 승계절차가 없었음에도, A사의 골프장의 부지 취득과 영업권 양수 약정을 별개의 절차로 진행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임.
- 대법원 판례는 영업권과 시설의 소유권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이전된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가 행해졌는지에 관하여 이를 부정하는 입장과 이를 허용하는 입장이 병존.
- 참가 팀은 본선 당일 추첨에 따라 인용설(이를 허용하는 입장)과 기각설(이를 부정하는 입장)로 나누어 모의행정심판을 수행했음.

A. 처음 문제를 받아보고 나서 팀원들 사이에서도 인용/기각에 대한 입장이 나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용설은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찾고자 하는 논지에서 주로 목적론적인 해석을, 기각설은 사건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엄격히 따지는 문리해석을 주된 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인용설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욱 힘들었는데 요건과 효과를 꼼꼼히 검토하는 데 더욱 익숙해서인지 인용설의 논거들을 준비하면서도 빈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거듭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체육시설법의 입법목적, 행정심판제도의 취지 등을 폭넓게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논거를 보강한 덕분에 대회에서 인용설을 뽑았지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팀원들 각각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있다면 이유는?

A.- 유현정(인용) : 저는 기각의견을 맡기는 했지만, 인용의견이었습니다. 두 의견 다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서는 청구를 인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원순(인용) : 저도 인용의견이었습니다. 조속한 국민의 권익 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비추어볼 때 본 사건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김은성(인용) : 인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각 의견과 인용의견이 둘 다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의 목적과 존재의의라는 기본으로 돌아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라면, 국민 권리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임무에 충실하게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인과 청구인도 모두 사업계획승인의 승계를 원하거나 따로 승계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승계를 부정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승인 신청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이상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보기에 수긍할만한 결론도 아닌 것 같고요.

- 이동현(인용) : 체육시설법의 입법취지와 행정심판 절차를 별개로 마련한 취지가 사안의 구체적인 모습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회원들의 권리가 우선적으



어진동 505팀(대장 유현정)이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로 보호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이은재(인용)** : 처음에 요건만 봤을 땐 기각해야 할 것 같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니 인용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요건만 고려해서 기각하기엔 회원들 피해가 컸고,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심판의 목적을 고려해도 인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한길(인용)** : 인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심판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판례보다는 유연한 법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주어진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인용재결의 부작용이 크지 않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박정현(기각)** : 저는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볼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러 당사자가 얽혀있는 사건인 만큼 법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 **이진안(기각)** : 저도 기각의견이었습니다. 청구인의 사정은 딱해보였지만, 관련 법령과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법리적으로는 청구인에게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 현장 추첨에서 인용 혹은 기각설 입장을 뽑았을 때 느낌은?

A. 저희 팀은 인용의견과 기각의견으로 각각 입장을 나누어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뽑느냐, 기각을 뽑느냐에 따라 출전하는지 출전하지 않는지가 정해지는 상황이었지요. 팀장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팀장이 기각의견 담당이어서 “인용”이 적힌 쪽지를 뽑는 순간 적어도 오전은 쉬겠구나 하는 생각에 은근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용 쪽지를 뽑았다고 하면, 팀원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뽑은 뒤에 인증샷을 찍어서 카톡

방에 올리기도 했어요. 사진들 들고 당당하게 인용의견을 뽑았다고, 인증샷도 있다고 말하니 사진으로는 못 믿겠다며 동영상 찍었어야 한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상대팀은?

A. 본선에서 만난 서울대 로스쿨 공세유데타 팀, 연세대 로스쿨 행정독수리 팀 모두 기억에 남습니다. 행정독수리 팀은 8강전에서 만났는데, 대회 준비를 꼼꼼히 잘 준비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막힘없이 미리 준비된 논리를 명료하게 전개해가는 부분 등 배울 점이 많은 팀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세유데타 팀과는 대회 참가 이전에 이미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대회 준비 과정 중에 서로 연습 상대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선에서 만났을 때 서로 어떤 논거를 펼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내년 대회를 준비하려는 후배/동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바빠도 꼭 참가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행정구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팀원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대회 참가하시는 분이라면,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최대한 생각해서 인용, 기각의 논리들을 많이 세워두고, 실전 연습도 꼭 해보시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팀원들과 함께 즐기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보다도, 준비하면서 팀원들과 맛있는 걸 먹고 동영상 찍으며 즐거워했던 것, 함께 고민하며 토론했던 과정이 정말 좋았습니다. 대회 당일에도 인터뷰하시는 기자님들께서 저희 팀 분위기가 특히 화기애애하고 여유롭다고 말씀해 주실 만큼 팀워크가 좋았어요. 좋은 결과는 따라와 준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MVP 수상자가 답변해드립니다.
김은성 학생 서울대 로스쿨7기



김은성 학생(서울대 로스쿨7기)이 MVP를 수상하고 있다.



MVP를 수상한 김은성 학생(서울대 로스쿨 7기)이 경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로스쿨 7기 김은성입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형사, 행정, 헌법 소송, 건설,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 분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로를 모색하는 중이고, 장기적으로는 입법 영역에서 법률 개선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력 있으면서도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균형감 있는 법률가가 되는 것, 인간적인 법 전문가가 되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Q. 수상 소감은?

A.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깜짝 놀랐죠. 본선 진출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팀 대상에 개인상까지 받게 되어서 기쁩니다. 부족한 면이 많았는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부끄럽기도 하고요. 저보다 팀원들이 더 잘 해줬고 다 같이 열심히 준비

했기 때문에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같이 고생한 팀원들 모두가 받아야 할 상이라고 생각해요.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늘 친절하게 지도해주신 최계영 교수님께도 감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신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회 준비해주신 여러 분들에게도 감사 올립니다.

Q. 어떤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자유토론 초반에 연속적으로 발언하면서, 상대팀의 반박에 충실하게 재반박을 했던 것을 좋게 평가해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연 과제의 쟁점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예상되는 공격을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방어 논리를 세워뒀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내년 대회를 준비하려는 후배/동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후시 참가를 망설이고 있다면 꼭 참가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행정심판의 심리는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험할 기회가 없는 만큼, 모의 재판보다 더 희소하고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재판이야 방청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많이 경험할 테니까요. 행정 사건의 재판 이전 단계에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추구하는 행정심판의 가치를 생각해볼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칭**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아마도 '변호사시험 합격'과 '취업'일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취업난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취업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이다. 이에 동아대·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취업을 개개인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학교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법조인 배출에 힘을 쏟고 있다.

동아대·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취업박람회를 소개합니다!

History

동아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본교 출신 예비 법조인들의 취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우수한 법조 인력을 확보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취업박람회 행사를 개최해왔다. 2011년에 개최한 제1회 취업박람회는 <취업간담회>라는 명칭으로 약 20개 기관의 법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2회부터는 변호사시험 시행 후인 1월 이후 실시되어 왔다.



5W1H

<p>What 취업을 위한 면접을</p> <p>Why 동아·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들의 취업지원을 위해</p> <p>When 매년 변호사시험이 끝난 직후 (1월중)</p>	<p>How 일대일 혹은 다대일 면접을 통해</p> <p>Who ㉔ 동아·부산대 출신 법전원생 ㉕ 변호사 채용을 하고자 하는 부산시 산하기관 및 법무법인, 법률사무소</p> <p>Where 부산 농심호텔에서</p>
---	--

Process

[대기 순번표 수령]

- 대청홀 내에 위치한 안내데스크에서 기관별로 준비한 대기 순번표를 수령한다.
- 사전에 조사하는 면접희망 기관조사 내용은 행사 전 해당 기관에 면접희망자의 이력서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행사 당일 면접순서는 대기 순번표 순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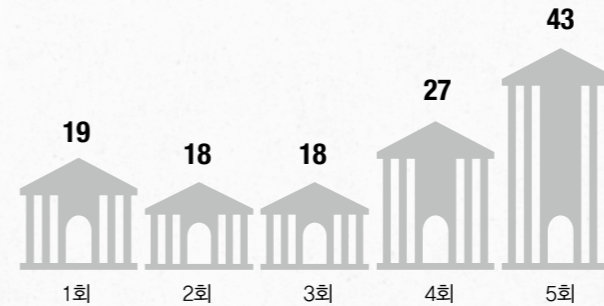


[면접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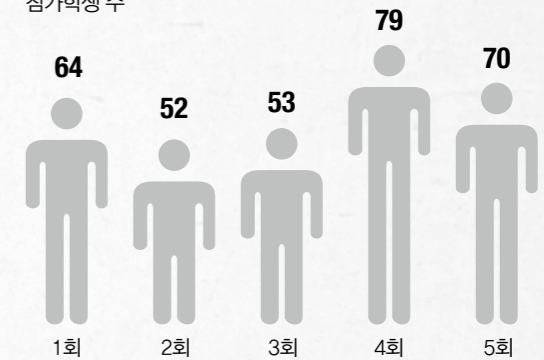
- 행사 시작 후, 지정된 면접 테이블에 면접 담당자가 도착하면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해당 기관의 대기 순번표 순서대로 면접을 진행한다.
- 면접 후, 대청홀 내의 안내데스크로 가서 면접을 본 기관의 대기 순번표를 반납하고, 다음 면접 희망기관의 대기 순번표를 받아 면접을 진행한다.

Statistics

참여기관 수



참가학생 수



2017년 동아대·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취업박람회

- ▶ 일 시 : 2017. 1. 20(금) 18:00~22:00
- ▶ 장 소 : 부산 농심호텔 허심청 2층 대청홀, 에메랄드홀

시간	내용	장소
18:00~18:30	개회사	에메랄드홀
18:30~22:00	사전에 지정된 테이블에서 면접 실시 - 참가기관별 부스 배치 - 학생들 순환하며 면접 실시	대청홀
22:00	폐회사	에메랄드홀



계승균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산·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취업박람회에 초대합니다!

2017년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6기들이 수료를 하고, 내년 1월 20일에 개최 예정인 동아대·부산대 취업 박람회도 제6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부산대학교 단독으로 개최했지만, 제4회부터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초기의 학사행정과 관련하여 '대학원에서의 교육', '변호사시험 합격', '취업' 3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취업은 학생 개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학생들이 취업의 기회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역 변호사회를 비롯한 수요자와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취업박람회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교수 개인에게 학생 취업을 부담지우거나 학생이 교수에게 취업을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전공 출신의 학생들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요자인 지역 변호사회의 회원변호사님들에게도 가능하면 개별적으로 채용하지 말고 취업 박람회장에서 여러 학생들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채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입장에서 취업과 관련된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군과 다양한 법률사무실을 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내 교수님들의 반응도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6회 개최를 통해서 학사행정의 하나로서 프로그램화 내지 전통이 되었고 계속해서 개최하자고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취업수요자, 학생, 취업을 제공하는 법전원의 교수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기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박람회 준비과정도 길고 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갖고 닦은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즐거운 고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정인)

Mini interview

Q.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A.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정우영(5기)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 있는 법무법인 정인에서 수습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어떤 업무를 맡고 계세요?

A. 제가 수습변호사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서면에 쓸 수는 없었지만, 6개월의 수습기간동안 민사로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인신문사항, 사실조회신청서 등을 작성하였고, 형사로는 변호인의견서, 증인신문사항, 변론요지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건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문에 대한 의견서도 작성하였습니다.

Q. 동아대/부산대 취업박람회를 통해 현재 근무하시는 곳에 취업을 하신건가요? 취업 프로세스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A. 정확히 말하자면, 취업박람회 자리에서 바로 취업을 한 것은 아니고,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정인의 수습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참여한 법률중사기관들이 그 자리에서 면접을 보고 바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공식적인 채용일정을 알려주거나 취업박람회 때 1차 면접을 보고 1차 면접 합격자에게 개별통지를 한 후, 2차 면접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변호사가 1~3명 정도의 소규모 법률사무소에서는 취업박람회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수습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취업박람회에서 정인 부스를 방문하였고 공식적인 지원일정을 들은 후 정인에 지원하였습니다. 제가 정인에 채용된 후 들은 바로는 취업박람회에 참석하신 변호사님께서 취업박람회 참석자들은 따로 표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Q. 취업박람회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요?

A. ① 인터넷 공고에 뜨지 않는 채용 정보 : 사실 많은 분들이 취업박람회를 통해 채용이 결정되는 줄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말 그대로 '박람회'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박람회를 가야 하는 이유는 공고에 뜨지 않는 취업의 기회가 훨씬 많이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 경남권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한변협 취업정보센터'보다 취업박람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취업정보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변협 취업정보센터에는 공고하지 않고 취업박람회를 통한 수습변호사 모집이 대부분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 현재 부산·경남의 법률시장 분위기 파악 : 취업에 관한 정보만큼이나 유익했던 것이 부산·경남의 법률시장 동향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면접보다는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 생활의 시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리 : 취업박람회에서는 여러 법률중사기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수습변호사 생활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지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죄라는 것에 대하여



장 레옹 제롬
배심원 앞에 선 프리네, Phryne before the Areopagus

그림출처

미술해설사 윤운중, 바다가 있는 영화 이야기, 아름다움은 무죄
[영화속 여성] 제롬작 "배심원들 앞의 프리네"
<http://blog.daum.net/sunny8992/24> 색깔있는 그녀, Sunny Blue 블로그
<http://blog.daum.net/yunsimon018/237> 배심원 앞에 선 프리네, 블로그

Phryne before the Areopagus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형사 법정에서 피의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그러한 피의자에 대하여 죄가 없음을 혹은 죄가 될 수 없음을 또는 죄는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죄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한 죄를 심문하는 방식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에서 선 피의자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지에 관계없이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하여 이끌려 옵니다. 후대에 그것이 죄가 되든 안 되든, 아니면 영원히 사실은 죄가 아닐 수도 있음에도 어쨌든 그 당대에 그것이 죄라 생각하므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단지 아름답기 때문에 죄가 된다면 요즘 생각으로는 참으로 황당하겠지요? 그러나 먼 과거에 어떤 여성은 몸매가 예쁘고 아름답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서게 됩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아테네의 프리네는 너무나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각가 프락시텔레스가 아프로디테 신상을 제작할 때 모델이 되었죠. 포세이돈 축제 중 신비극(당시 연극의 일종)에 출연하여 알몸으로 나타나 바다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모델 즉 신에게 자신의 형상을 빌려주었다는 이유와 신 역할에 나신으로 출연해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하여 신성모독 죄가 적용 되어 최고재판소 법정에서 서게 된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이지요.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배심원들이 모여 있고 중앙 왼쪽에 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프리네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천을 벗기는 남자는 그녀의 변호인 히페르테스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 애인이지요.

사실은 프리네를 고소한 것은 고관 에우티아스입니다. 에우티아스는 프리네에게 구애를 하였지만 프리네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를 패썹하게 여



크니두스의 아프로디테, 복제, 프락시텔레스, 루브르박물관

저자소개



김별다비
경감, 변호사, 큐레이터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미술을 전공하고 쇠대박물관 큐레이터, 아르코 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엘지전자 개인정보 compliance task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로 3년여 근무하다 예술인의 정의 구현을 위해 수사에 뜻을 두고 2기 경감 특채로 선발됐다. 3회 대법원 기인법정변론대회에서 형사 변론부문 전국우승을 한 바 있다. 대안공간 정다방, 리각 미술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미술법을 강의한 적이 있고, 월간 BizArt지와 한국박물관협회지에 미술법 칼럼을 쓰고 있다.

겨, 프리네가 사실은 고급 창부인데 여신의 모델이 된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프리네를 사랑했던 히페르데스는 프리네의 변호를 맡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말로 무죄를 주장해도 완고하고 고지식한 배심원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이대로라면 자신의 전 애인이 신성모독으로 죽을 것입니다.

히페르데스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프리네를 데리고 법정에서 배심원들 앞에서 그녀의 나체를 덮은 천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히페르데스는 “신상에 자신의 형상을 빌려 줄 만큼 이 아름다운 여인이 어떻게 신성모독을 할수 있냐”고 합니다.

그림 속 배심원들은 아름다운 여체를 처음 보았는지 다들 경탄하고 놀라워 하는 표정입니다. 수군대기도 하고 팔을 올려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 아름다움은 신의 의지로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완벽하다. 따라서 그녀 앞에서 사람의 법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이 신이자 절대선이라고 믿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때문에 아름다운 그녀를 용서하는 것은 신의지로 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네요.

프리네를 고소한 못난 에우티아스는 어디있을까요? 변호인 히페르데스 왼쪽에 시키면 어둠 속에 히페르데스가 젖힌 프리네를 덮은 천으로 얼굴을 가려진 남자가 에우티아스입니다. 프리네의 아름다움을 볼 자격도 없다는 뜻이지요.

변호인이자 웅변가인 히페르데스 뿐 아니라 조각가 프락시텔레스도 프리네의 애인이기도 했습니다. 프리네는 뛰어난 미모와 재주로 재산도 많이 모았고 나중에 이 재산으로 알렉산드로스의 공격으로 무너진 테베의 성벽을 재건할 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 파괴되고, 헤타이라 프리네에 의해 복원되다' 라는 문구를 성벽 위에 새기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급과 이름이 새겨지는 것에 반대한 시의회가 거절했다고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는 여러 작품에서 찬양되었는데, 그리스 최고의 화가였던 아펠레스는 <아프로디테 이나디오메네> (바다에서 솟아나는 아프로디테) 라는 걸작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창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기생처럼 당시 그리스 사회에는 재기도 있고 학식을 갖추고 정치나 예술 등에 대한 토론도 하고 당대의 저명한 남성들을 상대하는 여성들을 동행자 즉 '헤타이라 (Hetaira)'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남성을 상대하는 여성이라도 최하층은 '포르노이(Pornoi)' 라고 했습니다. 프리네의 본명은 Muesarete인데, 그녀의 피부색이 누르스름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두꺼비'라는 뜻의 프리네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그림에서는 피부가 하얗게 보이네요.

프리네는 빈민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프리네는 직업적으로 남자를 상대하지만 아무리 돈과 권력을 가진 남자라고 해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절대로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는 그리스 정치가 '솔론'의 등장도 있습니다. 솔론은 성매매에 대해 통제하기 시작해 세금을 거두고 등록하지 않은 성매매는 불법으로 처벌했는데 헤타이라 신분도 포르노이와 마찬가지로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당대 '자유로운 여성'이 '포르노이'처럼 단순한 창부로 관리당할 것을 거부하자 솔론은 헤타이라들을 법정에서 제외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프리네는 이 재판에서 무죄가 되었지만 헤타이라들의 쇠락은 그리스 가족주의가 안정화 되면서 빠르게 진행되었

고, 포르노이들만 남았다고 합니다. 당대의 그리스 시민사회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분위기가 팽배하였고, 프리네는 여성들에게 금기시되었던 철학토론, 향연 등 남성들만의 영역에 도전하였지요. 이런 그녀의 방식에 사회 지도층 남성들은 불만이 쌓여갔고 그녀를 옹호할 기회만을 노리는 중에 에우티아스가 사건을 터트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아무데서나 옷을 벗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하지는 말에 따르면 그녀는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바다로 들어가기도 했으나 평소 공공장소에서는 목까지 올라오는 드레스를 입고 공중 목욕탕 출입을 삼갔을 정도로 정숙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 에우티아스의 진의와, 당대 죄라는 것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움은 선하다는 편견”을 탄생시킨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아름다움은 무죄라며 외모 지상주의를 비꼬는 데 이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국 사건은 하나지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대중들에게 어떠한 사건에 대한 기억의 방식을 달리 하도록 하는 것이지 사실 이 사건은 오히려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프리네를 고소한 질투쟁이 에우티아스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창](#)

Phryne before the Areopag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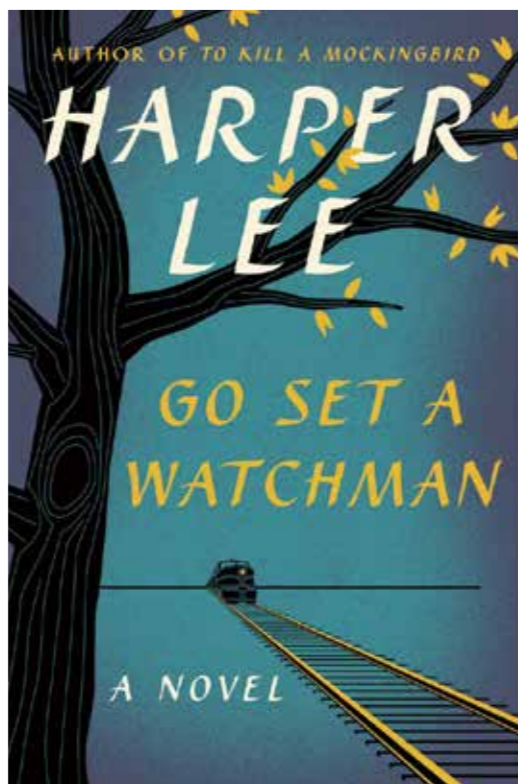
발 아래 떨어진 황금색 벨트에는 'KAHH' (美) 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다.



Nikolay Pavlenko, Phryne on the Poseidon's celebration in Eleusis, 1894 Oil on Canvas, 91cm x 131 cm



파수꾼



벌써 14년의 세월이 흘렀다. 스카웃, 또 다른 이름 진 루이즈, 그녀의 아빠 핀치변호사는 14년 전 메이콧주 법원에서 앨라배마 메이콧 마을의 모든 백인들이 반대하는 변론을 맡았던 무모한 사람이었다. 그는 재판장에서 열정적인 증인신문으로 백인 여성 유리엘의 오른쪽 눈을 때린 것은 왼손이 30센티미터 짧은 흑인 톱이 아닌 그녀의 아버지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스카웃의 눈에는 증인신문에 혼신을 기울이는 아빠의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이제 26세의 성인 여성이 된 스카웃은 오랜 뉴욕생활에서 벗어나 정든 고향 메이콧으로 돌아왔다. 도시의 삶에 지쳐 휴식을 찾고 싶었던 모양이다. 매년 비행기로 귀향했지만 다섯 번째인 이번 귀향길에는 기차를 타기로 했다. 기차길 옆에 펼쳐지는 전원의 풍경 속에 지평선 아래 목초지와 젖소들의 모습이 비춰진다. 왜 지금까지 고향의 전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진 적이 없었을까 의문이다. 지나가는 전경을 뒤로하고 기차가 경적을 울린다. 메이콧 역에 그녀의 남자친구 행크가 마중 나왔다. 곧 결혼을 약속한 둘은 한밤중에 옷을 입은 채 강가에서 함께 수영한 것 때문에 동네에 입소문이 퍼진다. 그간 오빠 잼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졌고 집을 돌보던 흑인 유모 캘퍼니아는 자기집으로 돌아가 그 자리를 고모 알렉산드라가 대신 지킨다.

메이콧 감리교회 주일 예배시간에 스톤목사는 이사야 21장 6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라는 구절을 통해 파수꾼이 본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설명하고 루이즈는 설교를 귀담아 듣는다.

집으로 돌아온 루이즈는 바닥에 놓인 한편의 소책자를 집어드는데 표지에는 식인종 니그로의 그림이 있다. 다 읽어본 루이즈는 그 책자가 아빠의 것이라는 고모의 말에 충격에 빠진다. 루이즈는 고모에게 니그로들은 머리뼈가 두껍고 두개골이 얇아서 백인보다 열등하므로 가능한 백인들은 니그로들에게 분수를 알도록 해줘야 한다는 대목이 마음에 든다고 실토한다. 고모는 대답한다. 아빠는 저 책을 주민협의회에서 가져왔고 아빠는 이사회 위원이며 헨리도 그곳 소속회원이라고. 아빠가 참석한 협의회에 달려 가보니 연사 오웬런은 인종차별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인종분리만이 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흑인이 14세 백인여성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을 때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점을 주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낸 전설적인 인물 아니었던가. 하지만 아빠는 지금 인종차별에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법정에서 인종차별과 투쟁하던 아빠는 같은 장소에서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연설을 듣고 있다. 내려오는 법원청사 계단이 죽음의 계단처럼 느껴진다. 아빠의 철저한 배신 때문에.

저자소개



박상흠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무팀장

동아대 로스쿨 재학시절 편집장을 맡은 일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한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신체특성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영입은 쟁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쓰는 일과 쉽게 설명하는 법률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가장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장차 나의 꿈은 법률이야기꾼이 되는 것이다.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깊은 밤, 술에 취한 지보네 아들이 힐리 영감을 치여 죽인 사건으로 유치장에 갇혔다. 지보는 어린 시절 루이즈를 돌보던 유모 캘퍼니아의 아들이다. 아빠가 변호를 맡겠다는 말에 안심하는 루이즈, 그러나 아빠의 소송전략은 유죄를 인정하도록 자백을 권유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보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흑인 변호사단 NAACP 고용변호사들이 흑인배심원들을 세우고 메이콧 주 법원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빠는 변했다. 예전에 흑인의 무죄를 위해 정의롭게 싸우던 아빠는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흑인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변론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루이즈는 어릴 적 엄마와 같이 자신을 돌보던 캘퍼니아의 집으로 찾아간다. 오랜만에 만난 캘퍼니아에게 외친다. “캘, 아빠가 도와줄거야” 3차례 반복되는 말을 들은 캘퍼니아는 “네 그러실 걸 알아요”라고 의례적인 답을 한다. 그러나 손자 프랭크가 잘못을 했기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포기하는 캘의 모습을 본 루이즈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린다. 한때 루이즈를 딸처럼 돌보던 캘은 이제 그녀를 백인으로 본다.

커피모임을 준비하는 알렉산드리아 고모는 백인이 흑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오히려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빗진 그들을 구해주고 문명화시켜주었더니 백인문명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불평을 늘어놓는다. 커피모임에 참석한 이들도 모두 흑인의 신분상승 때문에 오만해진 흑인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한다. 루이즈는 마을주민 뿐만 아니라 고모도 역시 인종차별주의자구나 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내뿜는다.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한 루이즈는 가깝게 지냈던 잭삼촌을 찾아가 아빠의 이상한 변화에 대해 문의하는데 삼촌은 원론적인 역사이야기와 함께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의 문제점을 언급하기만 한다.

헨리를 만나 주민협의회에 참석한 아빠와 헨리에 대해 묻자 그는 핀치변호사가 그 모임에 참석한 이유는 인종차별자들을 알기 위한 것이며 그 자신은 이 마을에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들의 토론을 보던 아빠와 루이즈간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아빠는 문명세계에서 한참 뒤떨어진 이들을 진보한 세계로 편입시킬 때 그들에게 이상향이 주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남부에서 흑인의 수가 백인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언젠가 정치적으로 백인이 그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이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수정헌법 제10조에 따라 완전한 시민의 평등권이 주어진다면 흑인변호사단의 득세로 메이콧주와 남부 나아가 미국전역은 일대 혼란이 벌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논리를 펴는다.

루이즈의 입장에서는 아빠의 모습은 완전히 변질된 것이다. 일전에 흑인을 변호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던 아빠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가지 영역이 있다면 인간의 양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의 아빠는 다수결의 원칙을 보장해주면 흑인은 백인을 몰아내고 말것이며 나아가 미국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정치적 안정을 위해 위 원칙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루이즈는 아빠에게 반박한다. 주의 권리와 정치체제는 고민하면서 왜 흑인들을 돕는 일은 생각하지 않느냐고..아빠가 자신을 속인 세월들을 돌려달라고 울먹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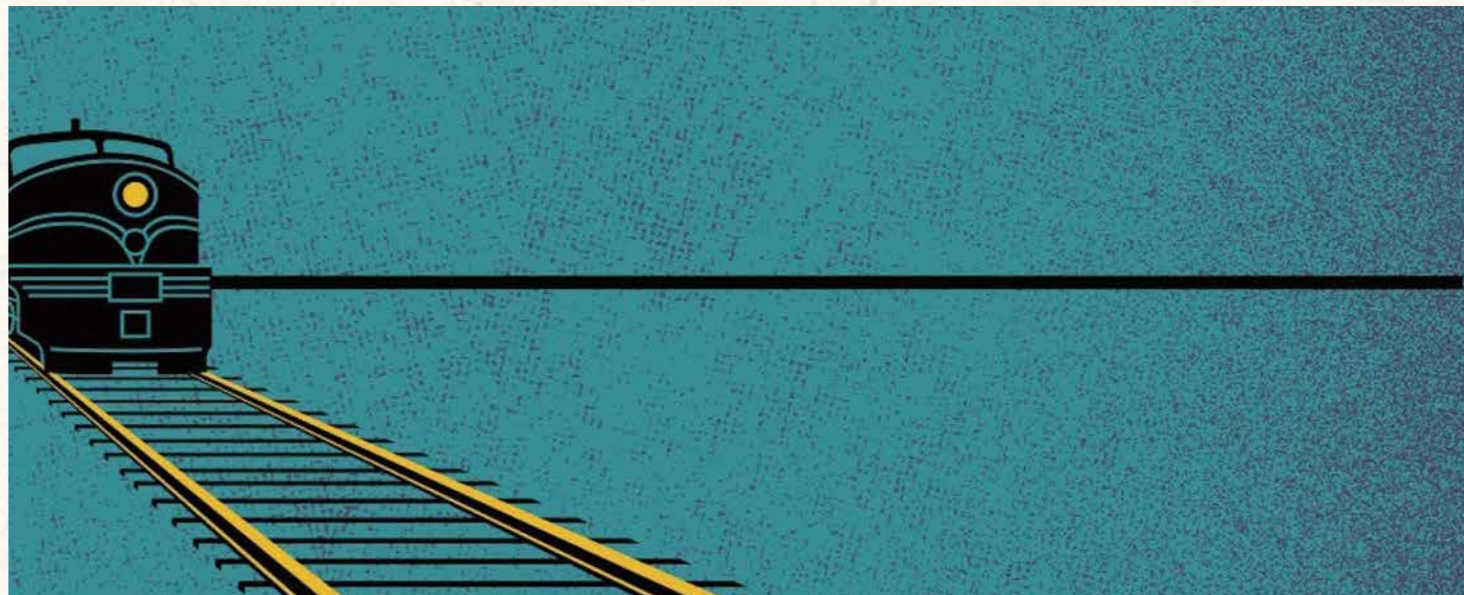
과거의 아빠와 현실의 아빠 속에 방황하고 있는 루이즈에게 삼촌 잭은 타이른다. “아빠는 신이 아니란다. 그를 인간 세계로 내려 놓거라. 아빠는 네가 아빠라는 우상을 철저히 부수기를 원한단다. 인종의 문제를 인종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색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66

아빠는 신이 아니란다. 그를 인간세계로 내려 놓거라.
아빠는 네가 아빠라는 우상을 철저히 부수기를 원한단다.
인종의 문제를 인종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색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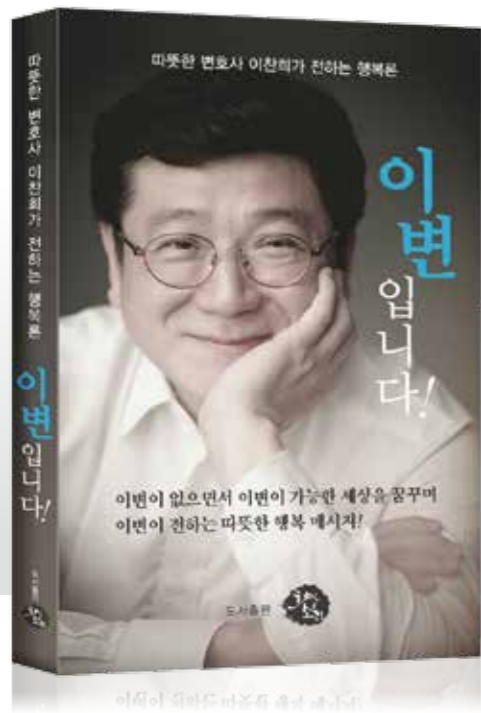
〈파수꾼〉에는 과거의 아빠와 현재의 아빠, 정의의 사도였던 아빠와 현실타협론자인 아빠의 모습 속에서 방황하는 20대 처녀 루이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루이즈와 대화하는 고모 알렉산드리아, 그녀의 남자친구 헨리, 잭삼촌과의 대화에서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의 이면을 보게 된다. 아빠가 변한 것일까? 삼촌의 말대로 아빠의 본래모습을 보지 못했던 어린 소녀 루이즈가 성숙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인간이 가진 이중성을 투사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트럼프가 내세운 정치논리 속에 핀치변호사의 철학이 녹아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급변하는 지구촌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민족간의 갈등, 난민의 문제,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다문화가정의 반목과 차별이 빚어내는 분쟁구도 속에서 소설 〈파수꾼〉은 시사하는 바가 큰 책이라 생각된다. 또한 서로 다른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세상 속에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고 싶다. 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평등권과 다수결의 원칙 속에 어떤 함의가 녹아있는지 깊이 고민하게끔 숙제를 던진 책인 동시에 그것을 통해 법조인에게 사회의 정의를 지켜야 할 파수꾼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듯하다. **창**



읽으면서 행복해지는 책, “이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김상률 변호사



〈책정보〉
신국판 / 244면 / 12,000원 / 도서출판 희망소리

〈저자정보〉
이찬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리사, 세무사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現 (사)한국국제의료협회 감사
現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
現 영등포구치소 교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

5년차 변호사로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매번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느낀다. 이럴 때 선배변호사님들의 따뜻한 조언 한마디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다. 평소 이찬희 변호사님의 글을 접하면서 후배 법조인들에 대한 그의 따뜻한 애정을 느껴왔다. 이 책의 부제인 “따뜻한 변호사 이찬희가 전하는 행복론”은 바로 저자와 그동안 그가 쓴 글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흔히 변호사를 부를 때 성을 따서 김변(金辯), 이변(李辯)이라고 부른다. 이 책의 제목인 이번도 바로 저자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의미의 이번(興變)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여 책의 제목을 정하였다고 한다. 이번이 없는 사회가 예측이 가능한 바람직한 사회일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번이 필요하고, 그래야 개인과 사회가 모두 발전하게 된다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평소 유머러스하면서도 창의적인 그의 성품이 책의 제목에서도 그대로 녹아 있는 듯하다.

저자는 서문에서 “따뜻함과 행복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평소 글을 써왔다고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다. 개

66

평소 이찬희 변호사님의 글을 접하면서 후배 법조인들에 대한 그의 따뜻한 애정을 느껴왔다. 이 책의 부제인 “따뜻한 변호사 이찬희가 전하는 행복론”은 바로 저자와 그동안 그가 쓴 글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99



김상률 변호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로스쿨 제1기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로 재직하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권익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유한)주원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으로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저자는 평소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과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과 달리, 사시존폐 논란 과정이나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강인한 신념을 가진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으로서,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저자의 직업이 변호사인지라 전체적으로는 법률이나 법제도에 관련된 글들이지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살아가는 이야기와 접목시켜 누구라도 쉽게 공감할 수 있게 저술되어 있다.


‘이번의 따뜻한 이야기’라는 소목차로 분류된 제1부는 존경하는 선, 후배 및 동료 변호사님들에 대하여 느끼는 저자의 관심과 애정이 듬뿍 담겨있는데, 그중 “아프지 마라, 나도 아프다”라는 글은 후배변호사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아름다운 그대 -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는 여성변호사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는 그대에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연수 지도관으로서 새내기 변호사들과 함께 하면서 변호사로서 출발을 하는 후배들에게 정말 귀감이 될 만한 내용으로 서술되어 읽은 사람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번의 행복한 이야기’라는 제2부는 변호사를 하면서 깨닫게 된 행복한 세상사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웃기는 법과 웃는 법”, “인생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글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느끼게 하고 있다. 제3부는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생활에 유용한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한 글로서, 제목 그대로 솔깃한 이야기들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읽으면서 가장 공감을 하였던 제4부는 사시폐지를 비롯하여 변호사 사회의 뜨거운 이슈에 대하여 저자의 소신을 피력한 글들

이고, 제5부는 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하여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지를 설명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계속하여 책 표지의 사진처럼 그의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가 생각나서 저절로 웃음을 짓게 되었다. 그리고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된 변호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행복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의 신념이 느껴진다. 이처럼 좋은 책을 선물한 저자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다. **창**

문화가 산책  놓치면 후회하는 전시 & 공연

미국의 던킨 맥두걸(Duncan Macdougall) 박사는 1907년 한 과학 저널을 통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으며, 그 무게는 '21g'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이 가까운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망 후 21g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던킨 박사의 주장에 반박하는 학자도 여럿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무게보다 영혼을 채워나가는 과정 아닐까? 한 해의 끝자락.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통해 영혼의 무게를 더해보자.



공연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공연기간 2016.11.26(토) ~ 2017.02.26(일)
티켓가격 VIP석_14만원, R석_12만원, S석_8만원
홈페이지 <http://www.musicalphantom.com>

당신이 몰랐던 「오페라의 유령」의 숨겨진 이야기

뮤지컬 팬텀

뮤지컬 「팬텀」은 세계적인 추리 소설가 가스통 르루(Gaston Leroux)의 대표작 「오페라의 유령」(1910)을 무대화한 작품이다. 흉측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채 파리의 오페라극장 지하에 숨어 사는 에릭이 크리스틴 다예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심도 있는 스토리와 클래식한 음악으로 아름답게 그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5년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으며, 연간 공연 티켓 판매 순위 1위, 2015 골든티켓 어워즈 작품상 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2016년 뮤지컬 「팬텀」은 초연 때 흥행을 일으켰던 박효신, 김순영을 비롯해 박은태, 전동석, 김소현, 이지혜 등이 합류해 역대 최고의 황금 라인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Musical

play-acting

20주년 맞은 웰메이드 연극
날보러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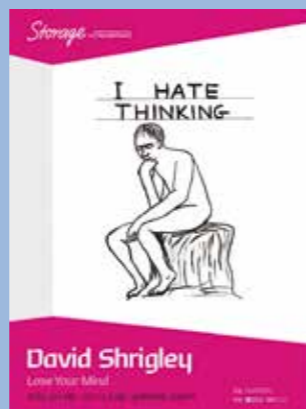


연극 「날보러와요」는 1996년 2월,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초연했던 작품이다. 송강호 주연의 영화 「살인의 추억」의 원작으로 더 잘 알려지기도 한 이 작품은, 올해로 공연 20주년을 맞았다. 무엇보다 올해는 기존의 베테랑 배우들보다 공연에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던 배우들이 참여해 새롭고 신선한 공연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화를 원작으로 두고 있는 만큼, 실제 사건 담당 형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탄탄하고 밀도 있는 구성을 했으며, 배우들의 연기력이 더해져 실화극의 묘미를 잘 살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공연장소 DCF대명문화공장 2관 라이프웨이홀
공연기간 2016.09.21(수) ~ 2016.12.11(일)
티켓가격 R석_5만5천원, S석_4만원
홈페이지 www.dmcf.co.kr

영국에서 가장 핫한 작가 데이비드 슈리글리 국내 첫 개인전

데이비드 슈리글리는 현재 영국 브라이튼(Brighton)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그는 멜버른 빅토리아 국립미술관(2015), 뮌헨 피나코테크 미술관(2014) 등 유수의 미술관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2013년 터너 프라이즈에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현재 영국에서 가장 주목 받는 현대미술 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일상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며 삶에 대한 성찰을 위트와 풍자로 담아내는 슈리글리의 작품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소 현대카드 Storage
전시기간 2016.10.06(목) ~ 2017.01.08(일)
티켓가격 5천원
홈페이지 <http://storage.hyundaicard.com/index.do>

Exhibition

거침없이, 아름답게 닉 나이트 사진전



전시장소 대림미술관
전시기간 2016.10.06(목) ~ 2017.03.26(일)
티켓가격 5천원
홈페이지 daelimuseum.org

닉 나이트는 과감하고 실험적인 촬영 기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온 포토그래퍼로서 사진과 디지털 그래픽 기술의 결합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시도 해온 작가이다. 스스로를 이미지-메이커(Image-Maker)라 칭하며, 다큐멘터리부터 패션 사진, 디지털 영상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에서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해왔다. 또한 알렉산더 맥퀸, 존 갈리아노, 크리스찬 디올, 입생로랑, 보그 등 세기의 디자이너 및 매거진과 협업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큰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켜 왔다. 이번 전시는 다큐멘터리적 시선부터 인종·동물 보호 등의 사회적 메시지를 포용한 패션 캠페인,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차별화 된 '이미지'로 거침없이 탈바꿈 온 닉 나이트의 작품들을 총망라하여 접할 수 있다.

Exhibition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원서접수기간 : 2016. 10. 4.(화) 09:00 ~ 7.(금) 18:00까지

대학명	모집정원							지원현황						경쟁률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합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합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합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38	2	40	40			-	221	8	229	229				5.82	4.00	5.73	5.73
건국대	38	2	40			-	40	127	8	135			-	135	3.34	4.00	3.38				3.38
경북대	57	3	60	56	4	60	120	218	13	231	262	16	278	509	3.82	4.33	3.85	4.68	4.00	4.63	4.24
경희대	55	5	60			-	60	291	28	319			-	319	5.29	5.60	5.32				5.32
고려대				114	6	120	120				378	35	413	413				3.32	5.83	3.44	3.44
동아대	38	2	40	38	2	40	80	264	10	274	289	10	299	573	6.95	5.00	6.85	7.61	5.00	7.48	7.16
부산대	66	4	70	46	4	50	120	231	15	246	191	19	210	456	3.50	3.75	3.51	4.15	4.75	4.20	3.80
서강대	19	2	21	18	1	19	40	188	8	196	215	10	225	421	9.89	4.00	9.33	11.94	10.00	11.84	10.53
서울대	141	9	150			-	150	480	62	542			-	542	3.40	6.89	3.61				3.61
서울시립대	45	5	50			-	50	194	28	222			-	222	4.31	5.60	4.44				4.44
성균관대				114	6	120	120				398	29	427	427				3.49	4.83	3.56	3.56
아주대	24	2	26	23	1	24	50	129	9	138	154	6	160	298	5.38	4.50	5.31	6.70	6.00	6.67	5.96
연세대				114	6	120	120				481	30	511	511				4.22	5.00	4.26	4.26
영남대	33	2	35	33	2	35	70	227	10	237	254	10	264	501	6.88	5.00	6.77	7.70	5.00	7.54	7.16
원광대	30		30	25	5	30	60	297		297	248	17	265	562	9.90		9.90	9.92	3.40	8.83	9.37
이화여대				94	6	100	100				361	22	383	383				3.84	3.67	3.83	3.83
인하대	22	3	25	25		25	50	108	13	121	146		146	267	4.91	4.33	4.84	5.84		5.84	5.34
전남대	58	12	70	50		50	120	299	36	335	250		250	585	5.16	3.00	4.79	5.00		5.00	4.88
전북대	37		37	37	6	43	80	191		191	205	21	226	417	5.16		5.16	5.54	3.50	5.26	5.21
제주대	18	2	20	18	2	20	40	100	5	105	122	3	125	230	5.56	2.50	5.25	6.78	1.50	6.25	5.75
중앙대	46	4	50			-	50	243	18	261			-	261	5.28	4.50	5.22				5.22
충남대	50		50	45	5	50	100	168		168	145	15	160	328	3.36		3.36	3.22	3.00	3.20	3.28
충북대	40		40	26	4	30	70	208		208	138	11	149	357	5.20		5.20	5.31	2.75	4.97	5.10
한국외대	27	3	30	20		20	50	99	9	108	95		95	203	3.67		3.60	4.75		4.75	4.06
한양대	95	5	100			-	100	510	25	535			535	5.37	5.00	5.35					5.35
합계	939	65	1,004	934	62	996	2,000	4,572	297	4,869	4,553	262	4,815	9,684	4.87	4.57	4.85	4.87	4.23	4.83	4.84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LAWSCHOOL NEWS



사법연수원 간담회 개최

지난 8월 18일(목) 사법연수원에서는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법연수원 측에서는 조용구 원장을 비롯해 기우중 총괄교수, 김경수 법실무실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측에서는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석했다.



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 방문

8월 22일(월) 일본 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에서는 법교육의 발전과 상호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형규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및 다수의 법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세가와 코(홋카이도대학 법학부 원장)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과 한국의 로스쿨 현황 소개, 법학도 양성 방법과 현 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고, 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 시설 탐방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장 임명



지난 10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장 겸 연구사업단장으로 임명했다. 신임 연구사업단장은 2018·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출제 총괄과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연구사업단장은 2018·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출제 총괄과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법무연수원 간담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 대표단 방문 행사



지난 10월 27일(목)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대표단 방문 행사가 열렸다.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두철 제주대학교 부총장과 김상찬 제주대학교 법전원장의 환영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교내 시설 투어를 비롯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자리도 진행됐으며, 법학전문대학원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장외 시설 투어를 비롯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자리도 진행됐으며, 법학전문대학원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11월 4일(금)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는 법무연수원 간담회가 진행됐다. 법무연수원 측에서는 김희관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이명주 용인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법전원협의회 측에서는 이형규 이사장을 비롯해 법전원장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법전원 학생들의 실무교육을 위한 지원방안과 검찰실무 강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5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 개최

참가대상 : 전국 법학대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 휴학 및 졸업예정자도 참가가능
 ※ 1팀 10인 이내에서 자유롭게 구성 (최소 5인 이상)

참가신청 : - 신청마감 : 2016.12.09.(금) 18:00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참가자명단,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저작권 이용허락동의서

심사방법 : 제출된 자료 사전 서류심사 및 대회 당일 현장에서의 경연 내용 종합심사 후 시상식

수상자 포상 및 특전

부 문	팀 수	상 금	비 고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팀	3백만원	상장 및 상금
최우수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상)	1팀	2백만원	
우수 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상)	2팀	각 1백만원	



법무법인(유) 로고스 2016년 동계 실무수습 모집

시행시기 : 2016.12.19.(월) ~ 2016.12.30.(금) 2주간
수습내용 : 신입변호사 선발을 위한 지도변호사의 개별지도 및 공통과제 평가 시행
지원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7기), 단 군미필자 제외
선발인원 : 12명 내외(예정)
선발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단, 필요시 생략 가능)을 거쳐 11월 30일(수)까지 개별통보
지원기한 : 2016.11.15.(화)
제출서류 : 이력서(첨부양식), 자기소개서(5P 이내 분량), 성적증명서를 이메일로 제출(로고스 공식 이메일: logos_recruit@lawlogos.com)
문 의 : 임형민 변호사(02-2188-1025)



가로 열쇠

- 채무이행을 지연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민법상의 대위절차(민법 제404조) 없이 압류채권자가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이다(형법 제250조2항).
-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47조).
- 자연의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태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태아가 살아있어도, 약물 등으로 모체 내에 살아있는 태아를 죽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 국제조정과 국제재판을 합하여 규정한 조약을 말한다. 이러한 조약은 일반조약으로서 국제분쟁의 성질에 따라 국제조정에 부탁할 사건과 국제재판에 부탁할 사건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 받고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력(自力)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23조1항).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에서 말한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152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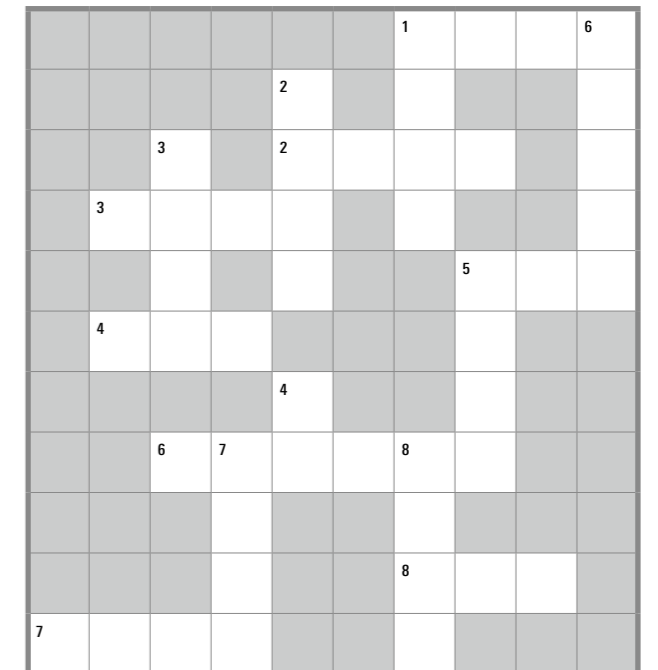
세로 열쇠

-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채무자에 대한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32조 참조).
- '차마의 통행을 금한다'고 하는 법문이 있는 경우에 말의 통행을 금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에서 사슴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의 자유가 인정된다.
- 노동쟁의 조정방법의 일종이다. (1)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을 할 때, (2)관계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청을 한 때에 위원회에서 행하기로 되어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 상해의 의사를 가지고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예컨대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려고 바다 속에 뛰어들어 익사한 경우이다.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느 누구도 부당한 침해를 감수할 의무는 없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각 위원 1인씩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가LAW 세LAW 낱말 퀴즈



법정소① 法務局② 法외법원③ 法원④ 法원⑤ 法원⑥ 法원⑦ 法원⑧ 法원⑨ 法원⑩ 法원⑪ 法원⑫ 法원⑬ 法원⑭ 法원⑮ 法원⑯ 法원⑰ 法원⑱ 法원⑲ 法원⑳ 法원㉑ 法원㉒ 法원㉓ 法원㉔ 法원㉕ 法원㉖ 法원㉗ 法원㉘ 法원㉙ 法원㉚ 法원㉛ 法원㉜ 法원㉝ 法원㉞ 法원㉟ 法원㊱ 法원㊲ 法원㊳ 法원㊴ 法원㊵ 法원㊶ 法원㊷ 法원㊸ 法원㊹ 法원㊺ 法원㊻ 法원㊼ 法원㊽ 法원㊾ 法원㊿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상군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송남대학교



송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